

自汗과 盜汗의 기전에 대한 고찰 -역대 의서의 논설을 중심으로-

¹한의학교전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²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사
윤기령^{1,2*}

A Study on the Mechanism of Spontaneous Sweating(自汗) and Night Sweating(盜汗) -Focusing on Discussions in Classical Medical Texts-

Yun Ki-ryoung^{1,2*}

¹Post-doctoral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²Instructor at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s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chanisms of spontaneous sweating and night sweating, their relationship and how the explanations of their mechanisms have changed over the course of time, through examination of past discussions on spontaneous sweating and night sweating.

Methods : Contents in classical medical texts that mention the mechanisms of spontaneous sweating and night sweating among search results from databases such as the Siku Quanshu were analyzed, followed by examination of each of their mechanism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Results & Conclusions : The cause of night sweating before the 『Danxixinfā』 was seen to be caused by yang deficiency in relation to problems of Exterior Qi and the theory of 'Heart governs perspiration', as the focus was on the phenomenon of sweating. However, it seems that yin deficiency came to be seen as playing a more fundamental rol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root cause of night sweating. Moreover, Zhu Danxi's emphasis on nurturing yin, the composition of Dangguihuangta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fire-heat pathology since the Jin Yuan period added to this shift in perspective. Night sweating from Shanghan could be seen as a sign of the already damaged Exterior Qi becoming more deficient while the pathogenic qi is in the half-exterior-half-interior zone, or as the pathogenic qi which entered with the Exterior Qi unsettling yin, or as a result of heat that is produced in the struggle between healthy qi and pathogenic qi that happens when Exterior Qi enters. Night sweating from miscellaneous disease could be seen as a sign of a deficient exterior that resulted from excessive entering of the Exterior Qi during yin deficiency, or resulting from relatively excessive Exterior Qi to deficient yin, producing heat that leads to sweating. If yin is not cultivated during the night but rather consumed leading to deficiency of Exterior Qi which also needs to be cultivated during night time, it could result in sweating.

Key words : spontaneous sweating(自汗), night sweating(盜汗), sleep sweating(寢汗), Shanghan night sweating(傷寒盜汗), miscellaneous disease night sweating(雜病盜汗)

* Corresponding author : Yun Ki-ryou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9183, E-mail : kgody@hanmail.net

Received(August 7, 2020), Revised(August 12, 2020), Accepted(August 12,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한의학에서 汗出異常을 의미하는 용어 중 自汗은 국내의 병리학 교과서를 참고하면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음에도, 날씨가 더워 옷을 벗을 정도로 따뜻하지 않음에도 그리고 發散之劑를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땀이 나오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하였고, 『三因論』을 인용하여 ‘昏醒을 구분하지 않고 점차 피부가 젖을 정도로 저절로 나오는 것’을 自汗으로 보았다. 盜汗에 대해서는 寢汗이라고도 하는데, 盜汗의 용어는 ‘수면 중에 땀을 흘리다가 깨어나면 바로 멈추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¹⁾. 중국의 中醫內科學 교과서에서는 “바깥 환경의 요소의 영향으로 인하지 않고 낮에 때때로 땀이 나고, 움직이면 더욱 심해지는 것을 自汗이라고 칭하고, 잠드는 중에 땀이 나고 깨면 저절로 그치는 것을 盜汗이라고 칭한다.”고 하였다.²⁾ 두 교과서의 自汗과 盜汗의 정의를 비교하면 盜汗의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의 교과서에서는 시간적으로 自汗의 범주에 盜汗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교과서는 自汗과 盜汗의 시간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自汗과 盜汗의 病因病機에 대하여 국내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自汗은 실증으로 營衛不和, 風濕阻遏, 陽明熱盛, 허증으로 氣虛, 陽虛를 들고 있다. 盜汗에 대해서는 실증으로 脾虛濕阻, 허증으로 心血不足, 陰虛內熱을 들고 있다³⁾.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自汗과 盜汗을 합쳐서 分證論治를 하였는데, 肺衛不固證, 心血不足證, 陰虛火旺證, 邪熱鬱蒸證으로 구별하고 있다⁴⁾. 두 변증 체계 중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風濕阻遏, 脾虛濕阻 등 다른 것도 있는데, 이처럼 두 교과서가 차이가 있는 경우는 기전에 대한 인식

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두 차이점을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은 自汗과 盜汗을 변증하는 데 혼동을 주므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自汗과 盜汗에 대해서는 『丹溪心法』 이후 많은 의서에서 “陽虛自汗, 陰虛盜汗.”의 설을 말하고 있다. 中醫診斷學 교과서에서는 自汗은 氣虛證과 陽虛證에서 많이 나타나며 陽氣가 부족함으로 인해 肌表를 固護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盜汗은 陰虛證에서 많이 나타나며 陰虛陽亢으로 인해서 內熱을 생하는데, 잠이 들면 衛陽이 表에서 裏로 들어가서 肌表는 不固하고 內熱은 가중되어 津을 밖으로 내보내서 땀이 난다고 하였다⁵⁾. 이러한 기전 설명은 위의 두 교과서와는 또 다르다.

따라서 自汗과 盜汗의 기전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고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국내에서는 自汗, 盜汗의 病因에 관한 논문⁶⁾이 있었는데, 自汗, 盜汗의 원인에 대해 제가들의 설을 정리한 후 “自汗은 心陽虛하여 不能衛外하여 發하고 盜汗은 腎陰衰하여 不能內營하여 發한다고 思慮된다.”라고 하여 제가의 설 중 李中梓의 『醫宗必讀』의 설을 그대로 가져와서 결론을 내었으나 선택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汗出의 病因病機에 대한 논문⁷⁾이 있었는데, 여러 서적의 땀에 대한 논술을 번역하고 정리한 후 “이 開闔作用의 異常은 自汗에 있어서는, 營衛不和, 風濕傷表, 熱熾陽明, 暑傷氣陰, 脾肺氣虛, 脾腎陽虛 등으로 區分하여 辨證하여야 하며, 盜汗에 있어서는, 心血不足, 陰虛內熱, 脾虛濕阻, 邪阻半表半裏 등으로 辨證하여 治方을 求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思慮된다.”라고 결론을 내었으나 앞의 내용을 볼 때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汗에 대한 학위논문⁸⁾이 있었는데,

1) 한의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編著. 한의병리학. 용인. 한의문화사. 2019. p.606.
2) 周仲瑛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1. p.415. (不因外界環境因素的影響, 而白晝時時汗出, 動輒益甚者, 稱爲自汗. 寐中汗出, 醒來自止者, 稱爲盜汗, 亦稱爲寢汗.)
3) 한의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編著. 한의병리학. 용인. 한의문화사. 2019. pp.607-608.
4) 周仲瑛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1. pp.418-419.

5) 朱文鋒 主編. 中醫診斷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0. p.18.
6) 朴淳達. 自汗-盜汗의 病因에 關한 文獻的 考察. 동서의학. 1988. 13(2). pp.5-14.
7) 李光揆 외 2人. 汗出의 病因病機에 對한 文獻的 小考.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 10(2). pp.62-75.
8) 류정아. 汗에 대한 研究 - 分類와 臨床活用을 中心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데, 汗出을 양상에 따라 분류함에 중점을 두었으며 自汗과 盜汗의 기전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였다. 중국에서는 학위논문으로 自汗과 盜汗에 대한 문헌연구⁹⁾가 있었는데, 각 의서와 의가들에 대한 정리 이외에 기전에 대한 고찰은 시도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陽虛自汗, 陰虛盜汗.”의 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여러 편의 논문¹⁰⁾이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自汗이나 盜汗을 다른 방식으로 치료한 치험례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自汗과 盜汗의 정의와 기전을 심도 있게 설명하는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표는 自汗과 盜汗에 대한 역대 논설을 수집, 검토함으로써 두 증상의 기전 설명의 변화와 각각의 기전, 그리고 두 증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四庫全書 등 검색 DB에서 自汗, 盜汗과 陽虛, 陰虛 등을 함께 검색하여 自汗과 盜汗의 기전을 언급한 역대 의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自汗과 盜汗의 각각의 기전과 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을 통해 自汗과 盜汗이 일어나는 기전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임상에서 활용하여 自汗, 盜汗과 관련된 이론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관련 증상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본론

1. 역대 문헌에 나타난 自汗과 盜汗에 대한 분석

지금부터 역대 문헌에 나타난 自汗과 盜汗에 대한 논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밝혔듯이 “陽虛自汗, 陰虛盜汗.”의 설이 『丹溪心法』 이후 많은 의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丹溪心法』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문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黃帝內經』,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살펴보고, 검색 결과 『丹溪心法』 이전에 自汗과 盜汗에 대하여 설명한 의서인 『諸病源候論』, 『傷寒明理論』, 『三因極一病證方論』을 연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丹溪心法』 이전의 문헌

(1) 『黃帝內經』

『黃帝內經』에서 땀이 나는 여러 가지 양상을 서술하고 있지만 自汗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고, 盜汗 대신 寢汗의 용어가 쓰였다¹¹⁾. 『素問藏氣法時論』¹²⁾에서 腎病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張介賓은 腎經에 實邪가 있는데, 腎邪가 心을 侮하여 心氣가 微하여 寢汗이 일어난다¹³⁾고 하였고, 黃元御는 腎水의 藏하는 기능이 失政하여 寢汗이 일어난다¹⁴⁾고 설명하고 있지만 왜 잘 때만 땀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吳崑은 잠잘 때 衛氣가 陰分으로 들어가 表가 성글게 되어 땀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腎과의 연관성은 밝히지 않았으며 腎虛라고만 하였는데¹⁵⁾, 腎無實證의 설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뒤에 ‘虛則胸中痛’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왜 虛證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腎病과 뒤에 ‘虛則’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腎病은 實證으로 보기보다는 虛實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

9) 溫佳雨. 自汗, 盜汗의 古代文獻研究與學術源流探討.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10) 王翠英. 自汗未必皆陽虛, 盜汗未必陰不足. 長春中醫學院學報. 1996. 3. p.6.

11) 『동양의학대사전』과 교과서 등에서는 寢汗과 盜汗을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간주하였지만 王冰은 『素問六元正紀大論』의 注에서 “寢汗, 謂睡中汗發于胸膈頸掖之間也, 俗誤呼爲盜汗.”(張登本 孫理軍 主編. 王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90.)이라고 하여 寢汗과 盜汗을 갈게 보지 않았다.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9. “腎病者, 腹大, 脛腫, 喘欬身重, 寢汗出, 憎風, 虛則胸中痛, 大腹小腹痛, 清厥意不樂. 取其經, 少陰太陽血者.”

13)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0. “腎主五液, 在心爲汗, 而腎邪侮之, 心氣內微, 故爲寢汗出. 如脈要精微論曰 陰氣有餘爲多汗身寒. 卽此之謂.”

14) 黃元御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素問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47. “腎水主藏, 藏氣失政, 故寢汗汗出.”

15) 吳崑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17. “腎虛之人, 寢則衛外之陽溼入于陰中, 則表疏而汗自泄.”

로 보거나 腎病을 기초로 하여 虛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素問·氣交變大論』¹⁶⁾에서는 歲水太過에 사람들의 병을 논하고 있는데, 『素問·藏氣法時論』의 腎病의 증상과 身重을 제외한다면 같다. 대체적으로 각 五運의 太過의 해에 ‘甚則’ 이후의 증상은 『素問·藏氣法時論』의 해당하는 五臟病 증상과 비슷하다. 주가들은 여기서 寢汗에 대해서는 『素問·藏氣法時論』을 인용하여 腎病으로 설명하거나 病在陰¹⁷⁾, 水氣外浮¹⁸⁾, 表陽虛¹⁹⁾ 등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素問·六元正紀大論』²⁰⁾에서는 太陽寒水가 이르러 寢汗과 瘧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다. 주가들은 寒水用事와 陰氣有餘²¹⁾, 手太陽小腸이 主液하므로²²⁾, 太陽不藏²³⁾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들로는 구체적인 寢汗의 기전을 알 수 없었다.

위 『黃帝內經』의 내용을 바탕으로 寢汗의 기전을 가정해보면 첫째로 陰分이 허하여 밤에 衛氣가 지나치게 안으로 들어와 表가 허해지고, 낮에는 衛氣가 다시 밖으로 나가 땀이 그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²⁴⁾. 여기서 陰分이 虛하다는 것은 상당 부분 腎이 虛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腎病과 寢汗을 연결할 수 있다.

둘째로 衛氣가 陰分을 돌 때 足少陰腎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腎이 병들면 衛氣도 함께 虛해질 수 있어서 잠잘 때 땀이 난다. 잠잘 때는 陰이 길러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陰이 用事하는 때이므로 더욱 소모되기도 한다. 따라서 밤에 衛氣가 더욱 虛해지는 것이다. 陰虛, 血虛의 병이 낮보다 밤에 심해지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잠이 깬 시간에는 밖의 陽氣를 받기 때문에 땀이 그친다.

(2) 『傷寒論』

自汗과 盜汗의 용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서적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이다. 『傷寒論』에서 自汗은 ‘自汗出’, ‘汗自出’로 여러 번 나오는데, 正氣가 회복되는 표현으로 저절로 땀이 나오는 상황을 제외하면 營衛不和로 주리가 열려서 땀이 나거나, 陽明의 熱이 성하여 진액을 밖으로 밀어내어 생긴다. 盜汗과 관계된 조문은 총 3조문이다. 『傷寒論』 134조²⁵⁾는 表證이 남아 있는데 잘못하여 下法을 쓴 상황을 말하고 있다. “微盜汗出而反惡寒者, 表未解也.”에서 微盜汗은 裏證이지만 아직 邪氣가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도리어 惡寒이 있는 경우에 表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201조²⁶⁾는 陽明病에서 脈이 浮緊한 경우와 浮한 경우를 비교하고 있는데, 脈이 緊한 것은 탄력성을 잃어서 더 중병임을 나타내므로 여기서의 盜汗은 潮熱에 비교해서 虛證이 덜 함을 나타내고 있다. 268조²⁷⁾는 三陽合病의 경우에 ‘目合則汗’, 즉 盜汗이 나타나는데, 脈으로 보았을 때 太陽病, 陽明病에 걸쳐 있어서 陽氣가 쉰 것을 나타내지만 증상이 少陰病처럼 잠을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5. “歲水太過, 寒氣流行, 邪害心火, 民病身熱煩心, 躁悸, 陰厥, 上下中寒, 謔安心痛, 寒氣早至, 上應辰星. 甚則腹大脛腫, 喘咳, 寢汗出, 憎風, 大雨至, 埃霧, 朦鬱, 上應鎮星.”
17) 吳昆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293. “病在陰, 故寢汗出.”
18)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484. “水氣外浮, 則寢汗出憎風.”
19) 張隱庵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601. “表陽虛, 故汗出憎風也.”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76. “太陽所至爲寢汗瘧.”
21)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7. “寒水用事, 故爲寢汗, 脈要精微論曰 陰氣有餘爲多汗身寒者是也.”
22)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625. “手太陽之脈主液所生病, 寢汗, 液虛也.”
23) 黃元御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素問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488. “太陽不藏則寢汗出.”
24) 후대 『目經大成』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

25)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355. “太陽病, 脈浮而動數, 浮則爲風, 數則爲熱, 動則爲痛, 數則爲虛. 頭痛, 發熱, 微盜汗出, 而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之下, 動數變遲, 膈內拒痛, 胃中空虛, 客氣動膈, 短氣躁煩, 心中懊憹, 陽氣內陷, 心下因鞅, 則爲結胸, 大陷胸湯主之. 若不結胸, 但頭汗出, 餘處無汗, 劑頸而還, 小便不利, 身必發黃.”
26)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366. “陽明病, 脈浮而緊者, 必潮熱, 發作有時. 但浮者, 必盜汗出.”
27)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372. “三陽合病, 脈浮大, 上關上, 但欲眠睡, 目合則汗.”

자고 싶어 하므로 三陽病에서 三陰病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인 少陽樞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3) 『金匱要略』

『金匱要略』의 自汗 또한 ‘自汗出’, ‘汗自出’ 로 여러 번 나오는데, 앞서 『傷寒論』에서 나온 것처럼 表의 正氣 회복, 營衛不和, 裏熱 등의 예를 제외하면 특별한 조문을 찾기 어렵다. 단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의 9조²⁸⁾의 自汗出은 風邪를 받은 것이지만 脈으로 보았을 때 일부 虛勞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盜汗이 나오는 조문은 총 2조문이다.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의 9조²⁹⁾는 平人の 脈을 통해 陰陽이 모두 허약한 경우 盜汗이 잘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의 29조³⁰⁾는 黃汗, 歷節, 勞氣의 감별점을 밝히고 있는데, 식후에 땀이 나오고 잠들 때 盜汗이 나오는 것은 胃氣가 부족하면서 熱이 있는 것이므로 勞氣에 속함을 말하고 있다.

정리하면 『傷寒論』, 『金匱要略』의 自汗의 기전은 비슷하지만, 『傷寒論』의 盜汗은 완전히 裏證으로 가기 전에 表證부터 裏證까지 들어오는 상태에서 걸쳐 있을 때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金匱要略』의 盜汗은 雜病으로서 裏證의 虛證에 가까운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두 서적의 동일저자인 張仲景은 盜汗이라는 같은 양태에 대해서 다른 기전으로 올 수 있음을 말하였다.

(4) 『諸病源候論』

모든 양은 표를 주관하니 피부와 주리 사이에 있다. 만약 양기가 편허하면 진액이 발설하기 때문에

땀이 난다. 땀이 많이 나오면 심에 손상을 주는데 심액이 땀이기 때문이다. 그 맥을 짚으면 촌구가 약한데, 양기가 허한 것이니 땀이 많은 맥이 된다.

도한이라는 것은 수면으로 인하여 몸에서 땀이 나는 것이다. 이것은 양허로 인하여 이른다. 오랫동안 낮지 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수척하고 마르게 하는데, 심기가 부족하여 진액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맥을 짚으면 남자 평인이어도 맥이 허약하고 세미한데, 모두 도한맥이다.

대병의 뒤에 다시 풍사가 승한 바이면 양기가 발설하기 때문에 하여금 허한이 난다. 땀이 많이 나서 망양이 되면 진액이 다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마르게 한다.³¹⁾

무릇 모든 양은 표를 주하는데, 양기가 허하면 자한이 된다. 심은 땀을 주하는데 심장이 편허하기 때문에 그 액이 함부로 나온다.³²⁾

『諸病源候論』에서는 虛勞와 병을 앓은 후의 상황에서 땀이 남을 말하고 있다. 陽氣가 偏虛하여 진액이 發泄한다고 하였는데, 陽은 表에 있어서 피부와 주리의 사이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陽은 衛氣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風邪가 乘한 바로 陽氣를 發泄시킬 수 있다고 한 것 또한 陽氣를 衛氣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하지만 陽氣가 虛하면 自汗이 되고, 心臟이 偏虛하기 때문에 液이 함부로 나온다고 하였고, 땀이 많으면 心臟에 손상을 준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心臟의 문제로 땀이 나오고, 다시 그로 인해 心臟에 손상을 주는 악순환을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陽氣를 心氣와 비슷한 의미로도 보고 있다. 이 表에 있는 陽氣를 心이 주관하고, ‘心主於汗’

28) 김정범 편저. 金匱要略辨釋. 용인. 한의문화사. 2003. “盛人脈澀小, 短氣, 自汗出, 歷節痛, 不可屈伸, 此皆飲酒汗出當風所致.”

29) 김정범 편저. 金匱要略辨釋. 용인. 한의문화사. 2003. “男子平人, 脈虛弱細微者, 喜盜汗也.”

30) 김정범 편저. 金匱要略辨釋. 용인. 한의문화사. 2003. “黃汗之病, 兩脛自冷; 假令發熱, 此屬歷節. 食已汗出, 又身常暮臥盜汗出者, 此勞氣也. 若汗出已反發熱者, 久久其身必甲錯; 發熱不止者, 必生惡瘡. 若身重, 汗出已輒經者, 久久必身潤, 潤即胸中痛, 又從腰以上必汗出, 下無汗, 腰體弛痛, 如有物在皮中狀, 劇者不能食, 身疼重, 煩躁, 小便不利, 此爲黃汗, 桂枝加黃芪湯主之.”

31)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 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08. “二十八、虛勞汗候 諸陽主表, 在於膚腠之間. 若陽氣偏虛, 則津液發泄, 故爲汗. 汗多則損於心, 心液爲汗. 診其脈, 寸口弱者, 陽氣虛, 爲多汗脈也.”

二十九、虛勞盜汗候 盜汗者, 因眠睡而身體流汗也. 此由陽虛所致. 久不已, 令人羸瘠枯瘦, 心氣不足, 亡津液故也. 診其脈, 男子平人脈虛弱細微, 皆爲盜汗脈也.

三十一、大病後虛汗候 大病之後, 復爲風邪所乘, 則陽氣發泄, 故令虛汗. 汗多亡陽, 則津液竭, 令人枯瘦也.”

32)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 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266 “六十、傷寒病後虛汗候 夫諸陽在表, 陽氣虛則自汗. 心主於汗, 心臟偏虛, 故其液妄出也.”

을 巢元方은 심장이 정상일 경우 땀이 함부로 잘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心氣가 不足해지면 땀이 함부로 나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自汗과 盜汗은 脈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盜汗이 더 虛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諸病源候論』은 虛勞를 기초로 하여 땀이 난다고 보았으므로 『金匱要略』의 설명과 유사하다.

(5) 『傷寒明理論』

상한자한은 무엇으로써 그것을 밝히는가. 자한이라는 것은 발산으로 인하지 않았는데 자연히 땀이 나는 것이 이것이다. 내경에 말하기를 양기가 밖을 지켜서 견고함이 된다. 위는 양이 되니 말하기를 피부를 지키고 주리를 살피우고 실하게 하며 진액을 금하고 막아서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땀이라는 것은 간섭하여 나가는데, 사기가 위기를 간섭하여 기가 밖을 지키고 단단히 하지 못하면 피부가 느슨하게 되고 주리는 성기게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진액은 함부로 빠져나가고 축축하게 젖고 칩칩하게 나오는데, 이르기를 자한이라고 한다.

만약 열이 나고 저절로 땀이 나는데 낫지 않은 것은 이것은 위기가 조화롭지 않고 풍사가 위를 간섭한 것이다. 太陽中暈에 땀이 나고 오한이 있고 몸에 열이 나고 목이 마르는 것은 서사가 위를 간섭한 것이다. 땀이 많이 나서 젖는 것은 이것은 풍습이 심한 것이니 습사가 위를 간섭한 것이다. 이것으로 위기는 진액을 단단히 보호하고 하여금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데, 반드시 사기가 간섭하여 나오게 함을 알 수 있다. 풍한서습의 독은 사시의 기이니 사람에게 적중하면 상한이 된다. 서갈풍습의 사기는 모두 저절로 땀이 나게 한다. 오직 한사가 사람을 상하는 것은 유독 땀이 나오지 않는다. 한은 영을 상하게 하고 위를 상하지 않아서 위는 사기가 간섭하는 바가 없으니 곧 피부와 주리는 뻣뻣할 수 있고, 진액은 가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땀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이 점차 안에 들어감에 미쳐서 전하여 열이 되면 또한 하여금 저절로 땀이 나오게 한다. 이것은 몸이 뜨거우면 영위가 소통되고 주리가 열려서 땀이 빠

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한의 증은 또한 표리의 구별이 있고 허실의 다름이 있다. 만약 땀이 나고 오통하며 微惡寒이 있는 경우는 모두 표가 풀리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발산함을 기다린 뒤에 낫는다. 땀이 새어나가는 것이 그치지 않고 오통하는 것에 이르러 발한시킨 후에 오한이 있는 경우도 또한 모두 표가 허한 것이니 반드시 온경을 기다린 뒤에 낫는다. 모든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사기가 표에 있는 것이다. 만약 땀이 나고 오한하지 않는 것, 이는 표는 풀렸지만 리가 조화롭지 않은 것이다. 경에 말하기를 양명병에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것은 이것은 열월이 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양명병에 열이 나고 땀이 많은 경우는 급히 하하게 한대라고 하였는데, 또 사기가 표에 있어서 완만하게 땀을 내는 것과는 같지 않다. 상한자한의 증이常在 되는 것인데 가령 혹 땀이 나서 습윤하게 되는 경우나 나오는 땀이 기름과 같은 경우 혹 크게 구슬처럼 나서 몸에 붙으며, 나오지 않고 흐르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불치증이 된다. 반드시 수족이 모두 두루 나며 온몸이 다 젖고 칩칩하게 한 때 정도 나오다가 번열이 그친 후에 몸이 서늘하고 조화로운 것이 좋은 것이 된다. 이것은 음양의 기가 조화롭고 수송화강하고 영위가 통하고 흘러서 사기가 나와서 풀리는 것이다. 내경에 말하기를 양의 땀은 천지의 비로써 그것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룬 것이다.³³⁾

33)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p.159-160. “傷寒自汗, 何以明之? 自汗者, 謂不因發散而自然汗出者是也. 《內經》曰: 陽氣衛外而爲固也. 衛爲陽, 言衛護皮膚, 肥實腠理, 禁固津液, 不得妄泄. 汗者干之而出, 邪氣干于衛氣, 氣不能衛固于外, 則皮膚爲之緩, 腠理爲之疏, 由是而津液妄泄, 澌澌然潤, 滃滃然出, 謂之自汗也. 如發熱自汗出而不愈, 此衛氣不和, 風邪干于衛也. 太陽中暈, 汗出惡寒, 身熱而渴者, 暑邪干于衛也. 多汗出而濡, 此其風濕甚者, 濕邪干于衛者也. 是知衛氣固護津液, 不令妄泄, 必爲邪氣干之而出也. 風寒暑濕之毒, 爲四時之氣, 中人則爲傷寒. 暑喝風濕之邪, 皆令自汗. 惟寒邪傷人, 獨不汗出. 寒傷榮而不傷衛, 衛無邪氣所干, 則皮膚得以密, 津液得以固, 是以汗不出也. 及其寒漸入裏, 傳而爲熱, 則亦使自汗出也. 蓋熱則榮衛通, 腠理開而汗泄矣. 然自汗之證, 又有表裏之別焉, 虛實之異焉. 若汗出惡風, 及微惡寒者, 皆表未解也, 必待發散而後愈. 至于漏不止而惡風, 及發汗後惡寒者, 又皆表之虛也, 必待溫經而後愈. 諸如此, 皆邪氣在表也. 若汗出不惡寒者, 此爲表解而裏未和也. 經曰: 陽明發熱汗出, 此爲越熱. 又曰: 陽明病, 發熱汗多者, 急下之, 又非若邪氣

『傷寒明理論』에서는 自汗을 발산하지 않았는데도 땀이 나는 것을 지칭하고, 邪氣가 衛氣를 간섭하여 땀이 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邪氣는 風邪, 暑邪, 濕邪이고 이외에 寒邪는 營氣를 상하고 衛氣를 상하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 熱邪가 되어 衛氣를 간섭한다고 하였다. 땀이 나오는 상황을 表裏를 구분하여 表病에서는 表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과 亡陽이 되어 表가 虛해진 것이 있고, 裏病에서는 表는 풀렸지만 裏가 조화롭지 않은 것과 陽明病에서 급하게 攻下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傷寒論』에서 發散法을 쓰지 않고 땀이 나는 경우를 모두 自汗으로 보았으므로 정의에 따라 병이 풀리는 상황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땀과 병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것과 不治를 모두 포함하였다. 따라서 ‘陽虛自汗’에서 지칭하는 自汗보다 범위가 넓고, 自汗이라는 용어 안에서 추가적으로 변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한도한은 무엇으로써 그것을 밝히는가. 도한이라는 것은 이르기를 자면서 땀이 나오는 것이다. 자한은 그렇지 않으니 혹 자거나 잠들지 않거나 땀이 나오는 것이다. 도한은 잠들지 않으면 땀이 나오지 못하니 그 잠들었을 때 축축하게 나오고 깨면 그쳐서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다. 잡병도한은 책임이 양허에 있다. 상한도한은 잡병의 허한 것과는 같지 않으니 이것은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어째서인가. 만약 사기의 일체가 표에 있어서 위를 간섭하면 자연히 땀이 난다. 이것은 사기가 침입하여 안쪽에서 행하고 밖으로는 표사와 이어져서 잠이 들에 미치면 위기가 안쪽을 행하여서 표 중의 양기가 치밀하지 않은 것을 틈타서 진액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잠이 들어서 땀이 나고 깨면 기가 표에 흩어져서 땀이 그치는 것이다. 경에 말하기를 약간 도한이 나고 도리어 오한이 있는 경우는 표가 풀리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 양명

병은 마땅히 리가 실한 것인데 맥이 뜨는 경우는 말함에 반드시 도한이라고 하니 이것은 여전히 표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삼양합병의 경우에 눈을 감으면 저절로 땀이 난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도한은 사기가 반표반리의 사이에 있는 것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또 자한은 허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실함이 되는 경우가 있다. 도한의 증은 자한이 실한 경우와는 같지 않으니 모두 마땅히 표를 조화롭게 할 뿐이니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³⁴⁾

傷寒盜汗은 表邪와 연결되어 있어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어서 일어난다고 하였고, 衛氣가 잠이 들 때 안쪽을 행하여 表의 衛氣가 虛한 것으로, 완전히 陽明病의 實證으로는 전변되지 않았으므로 自汗의 實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自汗과 盜汗의 공통점은 衛氣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自汗은 邪氣가 衛氣를 간섭한 것이고, 盜汗은 잠들 때 衛氣가 表 부위에서 虛해져서 치밀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自汗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自汗과 盜汗의 차이를 인식하고 변증해서 치료함에 원활하게 할 수 없고, 陽虛에 원인이 있다고 한 雜病盜汗에 대해서는 衛氣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이외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衛氣가 虛해지는 원인을 추론한다면 雜病盜汗은 內傷의 범주에 속하므로 中焦에서 水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衛氣의 생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로 七情內傷으로 인해 神과 精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이것은 衛氣가 밤에 少陰의 陰分으로 들어가고 下焦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34)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60. “傷寒盜汗, 何以明之? 盜汗者, 謂睡而汗出者也. 自汗則不或睡與不睡, 自然而出也. 及盜汗者, 不睡則不能汗出, 方其睡也, 溼溼然出焉, 覺則止而不復出矣. 雜病盜汗者, 責其陽虛也. 傷寒盜汗者, 非若雜病之虛, 是由邪氣在半表半裏使然也. 何者? 若邪氣一切在表于衛, 則自然汗出也. 此則邪氣侵行于裏, 外連于表邪, 及睡則衛氣行于裏, 乘表中陽氣不緻, 津液得泄, 故但睡而汗出, 覺則氣散于表, 而汗止矣. 經曰: 微盜汗出, 反惡寒者, 表未解也. 又陽明病, 當作裏實, 而脈浮者, 云必盜汗, 是猶有表邪故也. 又三陽合病, 目合自汗. 是知盜汗爲邪氣在半表半裏之間明矣. 且自汗有爲之虛者, 有爲之實者. 其于盜汗之證, 非若自汗有實者, 悉當和表而已, 不可不知也.”

在表而汗出之可緩也. 傷寒自汗之證爲常也. 設或汗出發潤, 與其出之如油, 或大如貫珠着身, 出而不流, 皆爲不治之證. 必手足俱周, 遍身悉潤, 熒熒然一時許, 煩熱已而身涼和, 乃爲佳矣. 此則陰陽氣和, 水升火降, 榮衛流通, 邪氣出而解者也. 《內經》曰: 陽之汗, 以天地之雨名之, 此之謂也.”

정리하면 『傷寒明理論』의 自汗은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생리적, 병리적인 상황을 모두 포괄한다. 盜汗은 『傷寒論』의 조문에서 나온 盜汗의 특징에 맞게 설명하고 있다. 傷寒盜汗과 雜病盜汗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책의 특성상 雜病盜汗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盜汗의 기전에서 衛氣가 잠이 들 때 陰分을 행하여 表가 虛해진다는 것은 『諸病源候論』에서 虛勞로 表가 虛해진다는 것과는 다르므로 기존 서적에 없는 설명이다.

(6) 『三因極一病證方論』

무릇 자한은 대부분 상풍, 상서 및 희, 노, 경, 공, 방실, 허로에 기인하는데 이들 요인이 모두 자한을 유발할 수 있다. 자거나 깨거나를 묻지 않고 침침하게 저절로 나오는 것을 이름하여 자한이라고 말하고, 혹은 잠든 상태로 땀이 나는 것을 곧 도한이라고 이름하고 혹은 침한이라고 말한다. 만약 음식과 노역과 무거운 것을 지고 멀리 가며 꼭대기에 오르거나 빨리 가서 움직임으로 인하여 땀이 나오는 것은 자한이 아니다. 사람의 기혈은 음양의 수화와 같아서 고르면 편안하고 치우치면 병이 되어 음이 허하면 양이 반드시 모이기 때문에 열이 나고 저절로 땀이 나는데, 물이 뜨거워서 저절로 넘치는 것과 같다. 양이 허하면 음이 반드시 승하기 때문에 결증을 발하고 저절로 땀이 나는데, 물이 넘쳐서 저절로 흐르는 것과 같다. 그 인한 바를 고찰하건대 풍서는 외인과 관련이 있고, 희노경공은 내인과 관련이 있고, 방실, 허로는 불내 외인과 관련이 있으니 이치가 또한 매우 분명하다. 그 사이에 역절과 장옹, 각기, 산목 등과 같은 것도 모두 자한이 있는데, 다스림에 마땅히 그 소인으로 병의 근원이 된 것을 미루어서 혼동되어 넘치지 않게 한다. 경맥별론에서 기재한 바는 다만 그 땀의 출처를 근원하여 찾은 것으로 애초에 자한증이 아니니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³⁵⁾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自汗의 원인으로 『傷寒明理論』에 비해 外感病의 邪氣는 축소되었고, 七情內傷의 원인과 房室, 虛勞가 추가되었는데, 陳無擇의 三因論 즉 外因, 內因, 不內外因의 이론이 自汗에 적용된 것이다. 『傷寒明理論』의 陽은 衛氣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陽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陰陽이 곧 寒熱을 지칭하여 실체가 다르다. 『傷寒明理論』의 설명에서 表虛의 虛는 表가 치밀하지 못하고 責其陽虛의 虛 또한 衛氣의 생성과 神, 精의 손상을 의미한다면, 『三因極一病證方論』의 虛의 용어는 보다 虛損의 의미에 더 가깝다.

自汗 또한 陳無擇의 주장대로 外因, 內因 이외에 不內外因 즉 虛勞傷으로 인해 땀이 난다고 하였는데, 不內外因을 강조한 것 외에 땀이 날 때 『傷寒明理論』과 달리 몸이 뜨거워지는지 뜨거워지지 않는지의 차이가 나타남에 주목하였다. 뒤의 처방 중 正元散의 설명을 본다면 일시적으로 精虛로 인해 發熱自汗이 나타나지만 오래되면 陽氣가 떨어짐으로 인해 發厥自汗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自汗證治만 있고 盜汗證治의 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는데, 自汗의 범주에 盜汗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뒤의 처방 중 牡蠣散에 대한 설명에서 “體常自汗, 夜臥即甚.”을 본다면 陳無擇은 『傷寒明理論』과 달리 自汗의 원인으로 不內外因의 虛勞를 중시하여 결과적으로 自汗의 일부에 盜汗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麥煎散의 설명에서 나오는 榮衛不調 또한 뒤의 四肢煩疼, 肌瘦面黃 등의 증상으로 볼 때 『傷寒論』의 榮衛不和보다는 더

熱自湧; 陽虛陰必乘, 故發厥自汗, 如水溢自流. 考其所因, 風暑涉外, 喜怒驚恐涉內, 房室虛勞涉不內外, 理亦甚明. 其間如歷節, 腸癰, 腳氣, 產尊等病, 皆有自汗, 治之, 當推其所因為病源, 無使混濫. 如《經脈別論》所載, 但原其汗所出處, 初非自汗證也, 不可不知.

正元散 治下元氣虛, 膈腹脹滿, 心脇刺痛, 泄利嘔吐, 自汗, 陽氣漸微, 手足厥冷, 及傷寒陰證, 霍亂轉筋, 久下冷利, 少氣羸困, 一切虛寒, 并宜服之. 常服助陽消陰, 正元氣, 溫脾胃, 進飲食.

牡蠣散 治諸虛不足, 及新病暴虛, 津液不固, 體常自汗, 夜臥即甚, 久而不止, 羸瘠枯瘦, 心忪驚惕, 短氣煩倦.

麥煎散 治榮衛不調, 夜多盜汗, 四肢煩疼, 飲食進退, 肌瘦面黃.”

35) 王象禮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p.122-123. “夫自汗, 多因傷風, 傷暑, 及喜, 怒, 驚, 恐, 房室, 虛勞, 皆能致之. 無問昏醒, 浸浸自出者, 名曰自汗; 或睡着汗出, 即名盜汗, 或云浸汗. 若其飲食勞役, 負重涉遠, 登頓疾走, 因動汗出, 非自汗也. 人之氣血, 猶陰陽之火水, 平則寧, 偏則病, 陰虛陽必湊, 故發熱自汗, 如水

심한 정도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素問·經脈別論』에서 ‘汗出於心’ 등의 내용은 五臟 등으로 땀의 출처를 명시한 것일 뿐 원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므로 自汗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傷寒明理論』과 달리 自汗을 병리적으로만 규정하였고, 땀이 날 때의 寒熱 상황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의 세 서적을 비교해보면 盜汗의 원인을 衛氣의 문제로 설명한 것은 『諸病源候論』과 『傷寒明理論』이 공통적인데, 다만 『諸病源候論』은 衛氣의 陽氣를 心氣와 비슷한 의미로 보았다. 自汗과 盜汗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虛勞의 범주에서 함께 본 것은 『諸病源候論』과 『三因極一病證方論』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丹溪心法』의 自汗과 盜汗 기술

다음은 『丹溪心法』에서 自汗과 盜汗에 대한 기술이다.

자한은 기허, 혈허, 습, 양허, 담에 속한다. 동원에 게 처방과 처방이 있으니 인삼, 황기와 약간의 계지로 돕는 것이다. 양허에는 부자도 또한 조금 쓸 수 있는데, 소변으로 끓이는 것이 필요하다. 화기가 위로 위중의 습을 써서 또한 땀이 날 수 있는데 양격산으로 그것을 주관한다. 담증에도 또한 땀이 난다. 자한에는 생강을 크게 꺼려야 하는데 그것이 주리를 열기 때문이다.³⁶⁾

도한은 혈허, 음허에 속한다. 소아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 생강을 쓰는 것을 꺼린다. 동원에게 처방이 있으니 당귀육황탕을 쓰면 매우 효과가 있다. 다만 약성이 차서 사람이 허한 경우는 다만 황기육일탕을 쓴다. 도한발열이 음허로 인한 경우는 사물탕을 쓰는데 황백을 더하고, 기허를 겸하면 인삼, 황기, 백출을

더한다.³⁷⁾

대씨가 말하기를 “도한은 잠이 들어 땀이 나는 것을 이리니 잠들지 않으면 땀이 나지 않는다. 폭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게 나오고, 깨면 그치고 나오지 않으니 자한이 저절로 나오는 것과는 같지 않다. 잡병도한은 책임이 양허에 있어서 상한도한과 비할 것이 아니니 또한 심허로 이르는 것이다. 마땅히 심기를 수렴하여 신수를 더하여 음양이 조화롭고, 수승화강하게 하면 땀이 저절로 그친다.”

『丹溪心法』에서는 自汗과 盜汗의 원인을 각각 나누어 서술하였지만 自汗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땀이 나온다고 보아 잘 때만 땀이 나는 盜汗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自汗의 원인에도 盜汗의 원인인 血虛가 포함되어 있다.³⁸⁾

“雜病盜汗，責其陽虛.”의 陽虛는 心虛를 의미한다. 心氣가 수렴이 안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땀이 나는 것을 心虛라고 하였다. 이 心虛를 야기하는 것은 腎水가 부족하여 水升火降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는 益腎水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丹溪心法』에서는 自汗과 盜汗의 원인을 구분하였지만 밑에 戴元禮의 설명을 보면 自汗의 정의에 盜汗을 포함시켰다. 朱丹溪가 盜汗의 원인을 血虛, 陰虛로 규정한 것은 戴元禮의 陽虛, 心虛와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責其陽虛는 『傷寒明理論』의 용어를 가져온 것이고, 心虛는 『諸病源候論』의 心氣不足과 유사한데, 결과적으로 水升火降이 안 된다는 것으로 益腎水를 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두 내

36)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320. “自汗屬氣虛血虛濕陽虛痰. 東垣有法有方, 人參黃芪, 少佐桂枝. 陽虛, 附子亦可少用, 須小便煮. 火氣上蒸胃中之濕, 亦能汗, 涼膈散主之. 痰症亦有汗, 自汗, 大忌生薑, 以其開腠理故也.”

37)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321. “盜汗屬血虛陰虛. 小兒不須治, 忌用生薑. 東垣有方, 用當歸六黃湯, 甚效. 但藥性寒, 人虛者只用黃芪六一湯. 盜汗發熱, 因陰虛, 用四物加黃柏. 兼氣虛, 加人參黃芪白朮. 戴云, 盜汗者, 謂睡而汗出也, 不睡則不能汗出. 方其睡熱也, 溼溼然出焉, 覺則止而不復出矣. 非若自汗而自出也. 雜病盜汗, 責其陽虛, 與傷寒盜汗非比之, 亦是心虛所致. 宜斂心氣, 益腎水, 使陰陽調和, 水火升降, 其汗自止.”

38) 『東醫寶鑑』에서는 『丹溪心法』을 인용하여 自汗, 盜汗을 설명하면서 自汗의 원인에서 血虛가 빠져 있다. 自汗과 盜汗의 원인을 분리해서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丹溪心法』의 自汗, 盜汗의 설명에서는 衛氣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自汗이 일어나는 기전은 『丹溪心法』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陽不能衛外而爲固'³⁹⁾라고 하여 陽氣 즉 衛氣의 작용의 문제로 설명한다. 『馮氏錦囊秘錄』에서 이외에 陰虛하면 火가 일어나 自汗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등⁴⁰⁾ 일부 이견이 있지만, 『丹溪心法』 이후의 의서를 살펴보았을 때 盜汗의 원인인 陰虛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전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陰虛의 원인에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두드러진다. 이에 盜汗의 원인을 陰虛로 보았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문헌을 살펴보고, 논설에서 나오는 自汗의 다른 기전은 부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丹溪心法』 이후 제가의 문헌

(1) 盜汗의 원인을 陰虛로 파악한 문헌

다음은 明代 『保嬰撮要』의 문장이다.

도한은 잠들면 땀이 나오고 깨면 땀이 거두어진 다. 자한은 양허에 속하고, 도한은 음허에 속한다. 대개 양은 위기가 되고 음은 영혈이 되는데, 혈을 주관 하는 것은 심이고, 간직하는 것은 간이다. 열이 심을 쳐서 맥이 안으로 거두어지지 못해 밖으로 피부로 나온다. 사람이 누우면 고요하여 음이 되고, 깨면 움직여서 양이 되니 그러므로 자한은 양에 속하고, 도한은 음에 속한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심신불교로 수화가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다.⁴¹⁾

자한은 땀이 때가 없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 양허에 속한다. 도한은 잠들면 땀이 나오고 깨면 거두어지지 음허에 속한다. 땀이라는 것은 혈이 화하는 바이다. 음기가 폐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들면 땀이 나온다."⁴²⁾

위 문단에서는 熱로 인해 心을 쳐서 땀이 나온다고 하였다. 心主汗의 이론에서 心에 문제가 생기면 心이 땀을 거두지 못해 나간다고 보았다. 낮과 밤이 陽과 陰이므로 陽虛는 自汗, 陰虛는 盜汗이라고 하였는데, 熱로 인해 땀이 나는 것을 虛證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고, 아래 문단에서 自汗은 어느 때고 땀이 나온다고 하였으므로 위의 이유로 낮이어서 自汗을 陽虛라고 한 것은 모순이 있다. 아래 문단에서는 陰虛의 陰을 陰氣로 보아서 陰氣가 閉藏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땀이 난다고 설명하였다. 自汗과 盜汗 모두 心腎不交로 인한다고 하였는데, 陰氣는 心腎 중 腎과 연결하여 自汗은 心의 문제, 盜汗은 腎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保嬰撮要』에서는 『丹溪心法』의 설명을 대체로 이어받아 보충하여 설명하면서도 일부 다른 설명을 하였다. 熱로 인해서 땀이 난다고 하였고, 心과 腎의 관계에서 血을 언급하여 설명하였다. 『丹溪心法』에서 陰虛를 腎水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다면, 여기서 陰虛를 陰氣가 작용을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景岳全書』의 문장이다.

땀이 나오는 하나의 증은 자한과 도한이 있다. 자한은 축축하게 때가 없고, 움직이면 더욱 심해진다. 도한은 자는 중에 온 몸에 땀이 나는데, 깨면 점차 거두어진다. 옛 법에서는 말하기를 “자한은 양허에 속하니 주리가 견고하지 않은 것은 위기가 맑은 바이다. 사람은 위기로써 그 표를 견고하게 하니 위기가 견고하지 않으면 표가 허하여 땀이 나서 진액이 그 때문에 빠져나온다. 치료는 마땅히 표를 실하게 하고

水火不能既濟.”

42) 盛維忠 主編. 薛立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9. “自汗者, 汗無時而自出也, 屬陽虛. 盜汗者, 睡則汗出, 寐則收也, 屬陰虛. 汗者, 血之所化, 陰氣不能閉藏, 所以睡則汗出也.”

39) 董漢良 主編. 越醫匯講(附:吳醫匯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381. “其人素虛, 或勞傷, 或大病後, 腠理虛, 陽不能衛外而爲固, 則自汗.”

40) 田思勝 主編. 馮兆張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86. “然自汗陽虛, 古今之定論., 但眞陰衰弱, 亦令自汗, 蓋陰虛則火動, 乘于陰位, 陰精被火煎熬而出, 猶乾竹而以火燃之, 亦有油也, 不可概用參、朮、黃芪與桂枝斂之, 但補其陰, 則火自潛伏而汗自止矣.”

41) 盛維忠 主編. 薛立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8. “盜汗者, 睡則汗出, 寤則汗收也. 自汗屬陽虛, 盜汗屬陰虛. 蓋陽爲衛氣, 陰爲榮血, 血之所主心也, 所藏肝也. 熱搏于心, 故液不能內斂而外泄于皮膚. 人臥則靜而爲陰, 覺則動而爲陽, 故曰自汗屬陽, 盜汗屬陰也, 多因心腎不交,

양을 보한다. 도한은 음허에 속하니 음이 허한 곳에는 반드시 양이 몰리기 때문에 양이 음분을 짜면 혈이 열이 나게 되고 혈이 열이 나면 액이 빠져나가서 도한이 된다. 치료는 마땅히 화를 청하게 하고 음을 보한다. 이것은 대법이니 진실로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된다.”⁴³⁾

생리적으로 잠잘 때 陽이 陰分으로 들어오지만 陰이 허하여 陽이 그 틈을 타서 모인다고 보았다. 즉 陰이 虛하기 때문에 陽이 과도하게 들어와 陰分을 찌므로 땀이 난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이 문단의 뒤에서 張景岳은 “自汗은 반드시 陽虛에 속하고, 盜汗은 반드시 陰虛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⁴⁴⁾라고 하였는데, 과로, 음식을 근거로 陽盛陰虛하여 自汗이 나온다고 하였다. 盜汗은 衛氣가 陰分에 들어가서 表에서는 陽虛라고 하였다.

『景岳全書』에서 정의한 自汗은 현대 교과서에서 외부의 다른 원인 없이 자연히 땀이 난다고 한 정의와는 같지 않다. 盜汗에서 陰分이 虛하여 陽이 그 틈을 타서 모이고 그로 인해 熱이 陰分을 찌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설명이다. 『保嬰撮要』와 비교해보면 血이 熱로 인해 결과적으로 땀이 나간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景岳全書』에서는 熱이 생기는 원인을 衛氣가 모이는 것으로 밝혔다. 후대에 張景岳은 盜汗의 원인에 陰虛와 陽虛가 모두 있다는 것을 주장

한 의가로서 교과서 등에 나와 있다⁴⁵⁾. 陰虛로 인하여 衛氣가 陰分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表 부위에 陽虛가 되는 것으로 盜汗의 원인이 陰虛와 陽虛가 모두 있다고 하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陰虛이므로 盜汗의 원인을 陰虛로 파악한 문헌으로 판단하여 『景岳全書』를 이곳에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古今名醫匯粹』에서 “이사제가 말하기를 땀은 심의 액이고, 신은 오맥을 주관하기 때문에 한증은 심신이 허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지 않음이 없다. 심양이 허하여 밖을 지켜서 견고함이 되지 못하면 밖이 상하여 자한이 되고, 신음이 허하여 안을 돌지 못해 물러나고 감추어지면 안이 상하고 도한이 된다.”⁴⁶⁾라고 하여 自汗과 盜汗을 心陽과 腎陰을 대비하여 각각 衛外와 內營의 작용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腎陰이 內營을 못하여 盜汗이 일어난다고 본 것과 自汗과 盜汗을 心腎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앞에서 본 『保嬰撮要』의 내용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心腎不交보다는 ‘汗爲心之液’, ‘腎主五液’의 개념으로 心腎이 虛한 것으로 땀이 나는 기전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辨證錄』의 설명이다.

사람이 야간에 열이 나서 처음에는 땀이 방울져서 나오다가 뒤에는 점차 많아지고 날이 오래되면 매일 밤마다 마침내 크게 땀이 나고 오경에 이르러 그치는 데, 사람들은 양허로 도한이 된다고 여기지만 누가 음허로 땀이 나온다는 것을 알겠는가? 무릇 음하는 신허이다. 신이 진음을 저장하는데, 음은 마땅히 간직되어 있어야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땀이 나는가? 이는 신중의 화가 동한 것이다. 신수는 화가 아니면 길러지지 않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수가 빠져나감에

43)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14. “汗出一證, 有自汗者, 有盜汗者. 自汗者, 澌澌然無時, 而動作則益甚. 盜汗者, 寐中通身汗出, 覺來漸收. 諸古法云: 自汗者屬陽虛, 腠理不固, 衛氣之所司也. 人以衛氣固其表, 衛氣不固, 則表虛自汗而津液爲之發泄也, 治宜實表補陽; 盜汗者屬陰虛, 陰虛者陽必腠(湊)之, 故陽蒸陰分則血熱, 血熱則液泄而爲盜汗也, 治宜清火補陰. 此其大法, 固亦不可不知也.”

44)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14. “然以余觀之, 則自汗亦有陰虛, 盜汗亦多陽虛也. 如遇煩勞大熱之類, 最多自汗, 故或以飲食之火起于胃, 勞倦之火起于脾, 酒色之火起于腎, 皆能令人自汗, 若此者, 謂非陽盛陰衰者而何? 又若人之寤寐, 總由衛氣之出入, 衛氣者, 陽氣也, 人于寤時則衛氣入于陰分, 此其時非陽虛于表者而何? 所以自汗盜汗亦各有陰陽之證. 不得謂自汗必屬陽虛, 盜汗必屬陰虛也. 然則陰陽有異, 何以歸之? 曰: 但察其有火無火, 則或陰或陽, 自可見矣. 蓋火盛而汗出者, 以火燄燄, 陰虛可知也; 無火而汗出者, 以表氣不固, 陽虛可知也; 知斯二者, 則汗出之要無餘義, 而治之之法, 亦可得其綱領矣.”

45) 周仲瑛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1. p.415.

46) 羅美. 古今名醫匯粹. 中醫世家. 2004. [cited 2020 30 July]: Available from: <http://www.zysj.com.cn/lilunshuji/gujinmingyihui/cui/631-10-10.html> “李士材曰 汗爲心之液, 而腎主五液, 故汗症未有不由心腎虛而得者. 心陽虛, 不能衛外而爲固, 故外傷而自汗, 腎陰虛, 不能內營而退藏, 則內傷而盜汗.”

이르는가? 수가 빠져나간다면 마땅히 아래로부터 나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피모로 가서 옆으로 나오는가? 수를 생하는 신화가 진화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진화는 고요하기를 좋아하고 움직이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수가 고요하면 진화가 수를 생하고 수가 움직이면 진화가 수를 빠져나가게 한다. 수를 생하면 화가 간직될 수 있고 수를 빠져나가게 하면 화가 곧 밖으로 달려 나간다. 그러므로 신 중의 화가 동하는 자는 인하여 신 중의 수가 저절로 동하는데, 사람이 성욕에 방종하여 그 정을 빠져나가게 함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정이 빠져나감이 과다하면 그 정을 수고롭게 하여 수가 동하고 화가 또한 동한다. 화가 동하는데도 수가 구제하지 못하면 화가 또한 수를 끼고 본궁에서 올라와 나와서 아래로 가지 않고 도리어 화의 성질을 따라서 경락과 주리의 사이를 유행하여 땀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처음에는 가끔 땀이 나다가 오래되면 밤마다 땀이 난다. 음기가 더욱 허해지면 더욱 땀이 나서 땀구멍의 가는 길이 마침내(수액) 전수하는 큰 길을 이룬다. 그러나 땀이 이미 쉽게 나온다면 마땅히 주야의 구분이 없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밤에만 땀이 나고 낮에는 땀이 나지 않는가? 음이 허해지면 양이 허하지 않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음양이 각각 도로가 있어서 양의 부분을 행하면 음이 감히 양의 권한을 빼앗지 못하고 음의 부분을 행하면 양이 음의 권한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밤에 땀이 나는 것은 실로 음이 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오경에 이르러서 음이 감히 양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음한이 양기를 만나서 저절로 도는 것이므로 음허이면서 양이 허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처방은 마땅히 진음을 크게 보하고 양분의 약을 더하여 음을 끌어올려 양분으로 나오게 하여 음이 양을 만나서 그치기를 바라는 것이다.⁴⁷⁾

47) 陳士鐸 著.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402-403. “人有夜間發熱, 初時出汗星星, 後則漸多, 日久每夜竟出大汗, 至五更而止, 人以爲陽虛盜汗也, 誰知是陰虛出汗乎. 夫陰虛者, 腎虛也. 腎藏真陰, 陰宜秘藏, 何故發汗? 蓋腎中之火動也, 腎水非火不養, 何反致泄水? 即水泄宜從下出, 何走皮毛而旁出耶? 不知腎火生水, 真火也. 真火喜靜而不喜動, 水靜則真火生水, 水動則真火泄水矣. 生水則火能秘藏, 泄水則火乃奔越. 故腎中之火動者, 仍腎中之水自動,

‘人以爲陽虛盜汗也’라는 말을 통해 많은 의서에서 『丹溪心法』의 영향을 받아 ‘陰虛盜汗’의 설이 많이 나타났지만, 일부 의가들은 이 당시에 盜汗의 원인을 陽虛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陳士鐸은 陰虛는 腎虛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陳士鐸이 自汗과 盜汗을 비교한 부분⁴⁸⁾에서 盜汗에는 心에 큰 원인을 두지 않았다. 위 논설은 腎中の 火가 동하여 腎中の 水를 동하게 하여 汗이 나온다는 설명인데, 그 원인은 사람이 하고자 함을 멋대로 하여 그 精을 泄하기를 좋아하여 腎中の 火가 동하고 인하여 腎中の 水를 동하게 한다. 腎中の 火인 眞火는 고요하기를 좋아하는데 眞火가 동하면서 腎中の 水를 동하게 하여 汗이 난다고 하였다.

陳士鐸이 주장한 내용의 특징은 陰虛를 腎虛로 본 것인데, 사람의 하고자 함을 멋대로 하여 精이 나간다고 보았으므로 곧 陰虛를 精虛로 본 것이다. 주로 腎의 문제로 盜汗을 설명하였고, 기전을 설명할 때 밤에만 땀이 나는 이유로 衛氣를 가져오지 않고, 낮과 밤의 시간에 따른 陽氣의 차이로 구분하였는데, 기준에 없는 설명이다.

다음은 『刪補名醫方論』의 當歸六黃湯에 나오는 설명이다. 참고로 自汗에 대한 처방은 『傷寒論』에서 桂枝湯, 白虎湯 등을 제시한 이후 각종 의서에서 여러 처방들이 나타나고, 盜汗을 치료하는 처방은 『肘後備急方』에서 食治方⁴⁹⁾과 外治方⁵⁰⁾을 제시한 이후

由於人之縱欲而好泄其精也. 精泄過多, 則勞其精而水動, 而火亦動. 火動而水不足以濟之, 則火且挾水, 而騰出於本宮, 不從下走, 而乃隨其火性, 遊行於經絡腠理之間, 遇毛竅而泄也. 初則偶爾遊行, 久則夜夜出汗. 陰氣愈虛則愈汗, 毛竅之細路竟成轉輸之大道矣. 然汗既易出, 宜無分晝夜, 何夜汗而晝不汗耶? 得毋陰虛而陽未虛乎? 不知陰陽各有道路, 行於陽之分, 則陰不敢奪陽之權; 行於陰之分, 則陽不敢奪陰之柄. 夜間出汗, 實陰走於陰之途, 至於五更, 則陰不敢入於陽之界. 故陰汗遇陽氣而自轉, 非陰虛而陽不虛也. 治法宜大補其真陰, 而加之陽分之藥, 提陰出於陽分, 庶幾陰遇陽而止也.”

48) 陳士鐸 著.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401. “自汗者, 心不得而自主也; 盜汗者, 心尚能操其意.”

49) 葛洪 撰. 葛洪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28. “又方, 烏雌雞一頭, 治如食法, 以生地黃一斤, 切, 飴糖二升, 內腹內, 急縛, 銅器貯甌中, 蒸五升米久, 須臾, 取出食肉, 飲汁, 勿噉鹽, 三月三度作之, 姚云神良, 并止盜汗.”

『蘭室秘藏』에서 ‘治盜汗之聖藥’이라고 칭한 當歸六黃湯을 대표로 하여 여러 처방들이 있다.

깨어 있는데 땀이 나오는 것을 자한이라고 말하고 잠들어서 땀이 나오는 것을 도한이라고 말한다. 음이 성하면 양이 허하여 밖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한이 되고, 양이 성하면 음이 허하여 안에서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도한이 된다. 만약 음양이 화평한 사람은 위기가 낮에는 양분을 행하여 깨어있고, 밤에는 음분을 행하여 잠이 드니 음양이 만남에 병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오직 음이 허하여 화가 있는 사람은 잠이 들면 위기가 음분을 행하는데, 음이 허하여 양을 구제하지 못하여 양화가 성함으로 인하여 음과 다투기 때문에 음액이 지킴을 잃고 밖으로 가서 땀이 난다. 잠이 깨면 위기가 다시 표에서 행하여 나오므로 음이 고요함을 얻기 때문에 땀이 그친다.⁵¹⁾

自汗과 盜汗이 일어나는 시간을 낮과 밤으로 구별하고 있다. 즉 陰이 虛하여 상대적으로 陽이 성하게 되기 때문에 火로 인하여 陰이 지킴을 잃어서 땀이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自汗, 盜汗을 시간으로 구분한 것 이외에 밤에 衛氣가 陰분을 행하여 表에서 虛한다든지 陰이 虛함을 틈타 지나치게 들어와 熱이 난다는 『景岳全書』의 설명과 달리, 陰이 들어온 衛氣에 비해 적으므로 陰虛火動으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刪補名醫方論』이 포함된 『醫宗金鑑』에는 “또 잠이 들면 땀이 나고 깨면 땀이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도한이라고 이른다. 도한은 음허를 주관하지만 마땅히 심허불고와 심화상음으로 나뉘어야 한다. 심허는 마땅히 보심해야 하고 심열은 마땅히 량혈해야 하니

치료하는 자는 마땅히 상세히 구별하여 오류가 없게 해야 한다.”⁵²⁾라고 하여 陰虛를 心虛不固로 心陰이 부족하여 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心火로 인해 陰이 상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盜汗의 원인을 陰虛로 본 것은 같으나 臟腑를 心腎이나 腎이 아닌 心으로 한정된 것이 특징이며 心虛證인 心虛不固와 心實證인 心火傷陰으로 나누어서 衛氣에는 주목하지 않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醫編』의 문장이다.

도한은 깰 때 땀이 없고, 잘 때 땀이 나오는 것이 마치 도둑이 사람들이 푹 잘 때를 틈타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깨면 기가 양분을 행하고 잠들면 기가 음분을 행한다. 만약 그 사람이 표양이 허한 자는 잠들 때에 기가 안을 행하는 때에 표는 더욱 지키는 바를 잃어서 더욱 성글어져서 곧 내화는 성하지 않지만, 양기가 안에 모여 있어서 작은 화로 촉발하여 또한 반드시 땀이 난다. 만약 내화가 본디 성하여 두 양이 서로 부딪치면 음액은 흔들려서 비록 표가 견고한 경우에도 또한 반드시 겉을 무너뜨리고 나간다.(그 사람이 음허하면 더욱 쉽게 동한다.) 잠을 깨면 양기가 다시 표로 나와서 땀이 저절로 그친다. 상한의 도한도 또한 그러하니 대개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을 때에 깨면 기가 사기를 끼고 표로 돌아가서 음은 안정을 얻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땀이 없고, 잠이 들면 기가 사기를 끼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이 흔들려서 편안하지 않으므로 땀이 난다.(단계가 말한 잡증의 도한은 양허와 음허가 있는데 큰 병 후에 음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남은 열이 없어지지 않아서 혹 노역, 칠정, 색욕의 화와 혹 음식의 적열이 모두 족히 정혈을 소모하고 손상시킨다. 음시가 상한 후에 양화가 홀로 왕성하여 안으로 쬐서 땀을 이룬다.)⁵³⁾

50) 葛洪 撰. 葛洪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29-130. “又方, 除盜汗, 及陰汗. 牡蠣爲末, 有汗處粉之.”

51) 吳謙 等編.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407. “寤而汗出曰自汗, 寐而汗出曰盜汗. 陰盛則陽虛不能外固, 故自汗. 陽盛則陰虛不能中守, 故盜汗. 若陰陽平和之人, 衛氣晝則行陽而寤, 夜則行陰而寐, 陰陽既濟, 病安從來? 惟陰虛有火之人, 寐則衛氣行陰, 陰虛不能濟陽, 陽火因盛而爭於陰, 故陰液失守外走而汗出. 寤則衛氣復行出於表, 陰得以靜, 故汗止矣.”

52) 吳謙 等編.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702. “又有睡則汗出, 覺則汗止, 謂之盜汗, 盜汗主陰虛, 然當分心虛不固, 心火傷陰也, 心虛當補心, 心熱當涼血, 治者宜詳辨之, 庶無差謬.”

53) 何夢瑤 撰. 醫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76. “盜汗者, 寤時無汗, 寐時汗出, 如盜乘人睡熱而出也. 人寤則氣行於陽, 寐則氣行於陰. 若其人表陽虛者, 遇寐而氣行於裏之時, 則表更失所護而益疏. 即使內火不盛, 而陽氣團聚於裏, 與其微火相觸發, 亦必汗出. 若內火素盛, 兩陽相搏, 陰液被

盜汗의 원인으로 그 사람이 表陽이 虛한 경우를 말하였는데, 잠을 깨면 이미 虛한 陽氣가 表로 나와서 汗이 그친다는 것은 이론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傷寒盜汗에서 半表半裏에 있는 邪氣가 衛氣를 따라 表와 裏를 왕래하는데, 表로 갔을 때 陰이 안정된다는 것은 表의 문제로는 汗이 나오지 않고 밤에 裏에 들어간 邪氣를 원인으로 파악한 것이다. 마지막에 盜汗의 원인으로 陽虛를 말한 부분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衛氣가 들어감으로 인해 表陽이 虛하거나 陰分의 火가 성하다는 기전은 동일하지만 이전에 表陽이 虛하거나 內火가 성한 사람을 언급하고 밤에 가중된다는 것은 체질과 관련이 있는 설명이다. 傷寒盜汗의 기전을 언급한 것은 『傷寒明理論』에서 밤에 表의 衛氣가 虛해진다는 것에 주목한 것과 달리 밤에 陰分에 衛氣와 함께 들어간 邪氣가 陰을 흔들어서 汗이 나오게 한 것으로 보았다.

『目經大成』에 따르면 “도한은 잠들어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 책임이 음허에 있다. 그러한 까닭은 음허한 사람이 잠들면 바깥에서 지키는 양이 틈타서 음속으로 빠져 들어와서 진액을 요동시키고 표가 견고한 바를 잃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汗이 된다. 깨어난 후면 양이 작용하여 위기가 다시 표로 나가서 표가 실해지면 곧 그친다. 이 때문에 귀문이 닫히지 않아 오래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魄을 잃게 한다.”⁵⁴⁾라고 하여 이 때 陽인 衛氣가 陰分을 쫓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表에서 固攝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汗이 난다고 설명한다. 앞에서 본 『景岳全書』와 기전이 유사하지만, 『目經大成』은 원인을 명확히 陰虛로 보았다.

다음은 鄭壽全의 『醫法圓通』과 『醫理眞傳』의 설

擾, 雖表固者, 亦必潰圍而出矣。(其人陰虛尤易動。)及其醒覺, 則陽氣還出於表, 而汗自止。傷寒之盜汗亦然, 蓋邪在半表半裏時, 寤則氣挾邪還於表, 陰得安靜不擾, 故無汗; 寐則氣挾邪入於裏, 陰被擾而不寧, 故汗出也。(丹溪謂雜證之盜汗, 有陽虛, 有陰虛, 大病後陰氣未復, 遺熱未清, 或勞役、七情、色欲之火, 或飲食積熱, 皆足耗損精血。陰氣既傷, 陽火獨旺, 內蒸成汗也。)”

54) 黃庭鏡 著. 目經大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308. “盜汗睡而自出也, 責在陰虛. 所以然者, 陰虛人睡去, 則衛外之陽乘隙陷入陰中, 擾動津液而表失所固, 故泄而爲汗. 既覺, 則陽用事, 衛氣復出于表, 表實汗即止. 是以鬼門不閉, 久久令人喪魄.”

명이다.

음허로 인하여 도한이 된다. 사람이 혈액이 오랫동안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원기를 거두고 갈무리하지 못하여 원기가 의지함이 없어 밖으로 빠져나가고 혈액은 또한 더불어 함께 나간다. 대부분 밤에 있으니 밤은 곧 원기가 아래로 갈무리되는 때이나 그리워할 음이 없기 때문에 汗이 난다. 汗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가 뜬다는 증거이다. 법은 마땅히 血을 길러야 한다.⁵⁵⁾

陰虛의 陰을 血로 보아 血이 元氣를 갈무리하지 못해 汗이 나온다고 보는 의견이다. 밤에 元氣가 갈무리되는 때에 陰이 없어서 元氣가 밖으로 떠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때 汗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陰이 虛한 원인으로 혈액이 오랫동안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元氣가 빠져나갈 때 汗이 나간다고 하기도 하고 혈액이 빠져나간다고도 하였는데, 혈액이 오랫동안 줄었던 원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시 혈액이 빠져나간다고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元氣가 갈무리되는 때조차 문제가 있어 밖으로 떠서 혈액이 빠져나간다면 갈무리되지 않는 낮에도 같은 이유로 汗이 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오류가 있다. 마지막으로 元氣가 밤에 갈무리된다는 표현은 곧 衛氣가 陰分에 들어간다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元氣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글의 앞부분을 참고하면 陽虛로 自汗이 났을 설명하였는데, 心, 脾胃, 肝腎의 陽이 쇠하여 각 장부의 혈액을 統攝하지 못하여 汗이 난다고 하였다.⁵⁶⁾

55) 鄭壽全 著, 于永敏 劉小平 校注. 醫法圓通.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4. “因陰虛者, 則爲盜汗. 由其人血液久虧, 不能收藏元氣, 元氣無依而外越, 血液亦與俱出, 多在夜分. 夜分乃元氣下藏之時, 而無陰以戀之, 故汗出也. 非汗自出, 實氣浮之微也. 法宜養血.”

56) 鄭壽全 著, 于永敏 劉小平 校注. 醫法圓通.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4. “因陽虛者, 由人素秉陽虛, 或用心過度而損心陽, 心陽衰, 不能統攝心中之液而汗出. 或脾胃陽衰, 不能收攝脾胃中之血液而汗出. 或肝腎陽衰, 不能收束肝腎中血液而汗出. 上中下三部陽衰, 皆能出汗, 統以陽虛名之.”

정리하면 『醫法圓通』에서는 陰虛를 다른 서적과는 다르게 血虛로 보아 補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용한 元氣라는 단어를 衛氣로 이해했을 때 기존과 다른 설명은 陰 즉 血이 없으므로 衛氣가 陰分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 氣가 나감으로 인해 汗이 나간다고 설명하였다.

여러 서적에서 자한을 양허라고 칭하고, 도한을 음허라고 칭하는데, 모두 그 뜻을 아직 통하지 못한 것이니 내가 특별히 때문에 그것을 해설한다. 양허자한은 밖을 지키는 양이 부족하여 밖의 혈액을 거느리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대략 상은 ≡(리)괘를 따른다. 도한은 음허인데, 이것은 음이 부족하여 음 중의 화가 밖으로 떠서 혈 또한 그것을 따라 밖으로 나오니 대략 상은 ≡(감)괘를 따른다. 사람이 명을 세우는 것은 곧 이 두 가지이다. 사람이 낮에 일어나서 눈이 떠지면 ≡(리)괘를 따르니 진기는 양분을 행하고 음은 안에 있고 양은 밖에 있어서 양이 부족하면 안의 음을 거느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汗이 난다. 밤에 누워서 눈이 감기면 ≡(감)괘를 따르니 진기가 음분을 행하고 음이 밖에 있고 양이 안에 있어서 음이 부족하면 진기가 위로 뜨고 혈액이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도한이 일어난다. 이것이 두 汗나는 것의 실제 근거이다.⁵⁷⁾

낮과 밤을 離卦와 坎卦로 비유하여 각각 陽虛와 陰虛로 인해 汗이 난다고 설명하였다. 앞의 『醫法圓通』과 같은 저자의 글인데 眞氣라는 용어 역시 衛氣와 큰 차이 없이 사용되었고, 自汗의 설명을 보면 또한 衛氣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밤에 眞氣가 陰分으로 행한다고 함으로 인해 陰이 밖에 있고 陽이 안에 있는 坎卦로 배합한 것은 낮의 離卦와 상대해서

본 것이다. 낮에 陽이 부족하면 陰液을 거느리지 못해 汗이 나가는 것이고, 밤에 陰이 부족하면 陽인 眞氣가 나가게 되어 이때 液이 따라 나가서 汗이 나간다는 설명인데, 낮과 밤 모두 汗이 나간다는 것을 역지로 설명하기 위한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앞의 『醫法圓通』과 저자가 같으므로 여기서도 陰을 血로 보고 있다. 두 서적을 보았을 때 自汗의 기전을 陽氣와 衛氣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盜汗의 기전을 설명할 때 사용한 元氣, 眞氣의 실체와 큰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推拿扶微』의 내용이다.

도한은 분명히 음허이니 또 양허자한과는 차이가 있다. 음허로 도한이 되는 이유는 음혈이 이미 허함으로 인하여 화가 길러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잠들어 기가 와서 음혈로 의지하여 돌아가는 때를 틈타서 기분을 침범하고 넘쳐 그 나감을 펍박하여 汗이 난다.⁵⁸⁾

음혈이 이미 허하면 안의 영이 주재하는 바가 없어 외부에서 화생하여 영혈로 의지하여 돌아가는 기가 수용되는 바가 없으니 그러므로 잠들 때를 당하여 허화가 양분을 범할 때에 발하여 도한이 된다.⁵⁹⁾

陰血, 營血을 의지하여 돌아가는 氣는 衛氣로 볼 수 있다. 두 내용을 연결하면 虛火가 氣分, 陽分을 범하므로 汗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陰血이 있어야 火가 길러지는데, 陰血이 虛함으로 인해 火가 길러지지 못해 虛火가 생기고 잠잘 때 밖에 있는 衛氣는 안에 陰血이 부족하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때 虛火가 氣分 즉 陽分을 범하므로 이에 汗이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57) 鄭壽全 著, 于永敏 校注. 醫理真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93. “諸書稱自汗爲陽虛, 盜汗爲陰虛, 總未暢言其旨, 余特爲解之. 夫陽虛自汗者, 是衛外之陽不足, 而不能統衛外之血液也. 大槩從≡. 盜汗爲陰虛, 是陰不足, 而陰中之火浮于外, 血亦隨之外出, 大槩從≡. 人身立命就是這二物. 凡人晝起目張從≡, 則眞氣行于陽分, 陰在內而陽在外, 陽不足則不能統內之陰, 故自汗出. 夜臥目瞑從≡, 則眞氣行于陰分, 陰在外而陽在內, 陰不足則眞氣上浮, 而血液隨之, 故盜汗作, 此二汗之實據也.”

58) 陸拯 主編. 近代中醫珍本集 鍼灸按摩分冊.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p.974. “盜汗明是陰虛, 又與陽虛自汗有異. 而陰虛所以盜汗者, 因陰血既虛, 則火無所養, 故乘人睡眠氣來依歸陰血之際, 侵越氣分, 逼其出而爲汗也.”

59) 陸拯 主編. 近代中醫珍本集 鍼灸按摩分冊.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p.1137. “陰血既虛, 則營內者無所主宰, 而外部化生依歸營血之氣, 卽無所收容. 故當夢寐之時, 虛火干犯陽分, 發而爲盜汗也.”

陰血이 虛함으로 인해 火가 길러지지 못해 虛火가 생긴다는 것은 앞서 『辨證錄』의 설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推拿扶微』의 설명의 특징은 衛氣가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火가 생기는 것이고, 이 火가 陰液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 衛氣를 범하여 땀이 난다는 것이다.

『丹溪心法』 이후 여러 의서에서는 대체로 自汗과 盜汗을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陰虛로 인하여 盜汗이 일어나는 기전을 서술한 것을 살펴본 결과 陰虛라는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陰에 대하여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기전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잠들 때 衛氣가 陰分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기전에 활용하는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 盜汗의 원인을 陰虛로 파악하지 않은 문헌

일부 의서에서는 盜汗의 원인을 陰虛로 보지 않았는데, 먼저 『馮氏錦囊秘錄』의 글이다.

자한은 양허로 습이 있는 것에 속하고, 도한은 음허로 화가 있는 것에 속한다는 것은 옛 철인의 정론이다. 그러나 경에서 말하기를 “양은 밖을 지켜서 견고함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다만 화와 원기는 세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화가 성하면 양이 쇠하고 양이 쇠하면 위기가 허해지고 허해진 위기가 음분을 행하는데, 눈을 감을 때를 당하여 정기는 그 표를 단단히 할 힘이 없으므로 주리가 열리고 진액이 빠져나가서 땀이 된다. 깨면 눈이 떠지고 음분을 행하던 기가 다시 표로 돌아가서 땀이 그친다. 도한이라고 이르는 것은 경에서 침한이라고 이른다. 자한도한은 비록 음허, 양허로 나누지만 모두 위기에 속한다. 또 위기라는 것은 실로 곡기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폐장이 분포시키는 것이므로, 천진의 양이 반드시 이것을 얻은 뒤에 充大해지고 이것이 없으면 衰微해져서 變證이 백 가지로 나오니 어찌 汗에 그치겠는가?⁶⁰⁾

60) 田思勝 主編. 馮兆張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86. “夫自汗屬陽虛有濕, 盜汗屬陰虛有火, 古哲之定論. 然經曰: 陽者衛外而爲固也, 但火與元氣勢不兩立, 故火盛則陽衰, 陽衰則衛虛, 其所虛之衛行陰, 當瞑目之時, 正

火가 元氣를 衰하게 하므로 衛氣를 약하게 한다는 것인데, 약해진 衛氣로 自汗과 盜汗이 모두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盜汗의 경우는 깨면 다시 氣가 表로 돌아가서 땀이 그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自汗과 盜汗 모두 衛氣가 表에서 虛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虛證에 가까운데, 앞서 『金匱要略』, 『諸病源候論』의 盜汗의 설명과 유사하다.

다음은 『醫法圓通』의 문장이다.

또 한 종류의 밖으로 음성격양의 증이 있어서 야간에 또한 땀이 나는데, 이것은 양이 아래로 교류하고자 하나 못하기 때문에 양이 밖으로 뜨므로 땀이 난다.⁶¹⁾

자한과 도한은 모두 양허의 증인데 각 서적에서 도한이 음허가 된다고 칭하는 것은 이것이 밤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밤에는 곧 양기가 잠잠하는 때이나 밤은 실제로 음이 성한 징후로서 음이 성하면 양을 밖으로 펌박할 수 있고 양이 떠서 밖으로 없어짐에 혈액이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땀이 나고 도한이라고 말한다. 의사들은 그것이 양허가 되어 음기를 눌러서 들어가게 하지 못하여 음기가 밖으로 넘어서 혈액이 또한 나오는 것과, 음이 성하여 양을 밖으로 밀어내어 양이 잠기지 못하여 또한 땀이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뜻은 매우 은미하니 배우는 자는 힘쓰는 것이 모름지기 서로 뿌리가 되는 곳을 이해해야 한다.⁶²⁾

氣無力以固其表, 故腠理開, 津液泄而爲汗, 迨寤則目張, 其行陰之氣復還于表而汗止矣. 謂之盜汗, 經名寢汗也. 自汗盜汗, 雖分陰虛陽虛, 然悉屬于衛. 且衛氣者, 實由穀氣之所由化, 肺臟之所分布, 即天真之陽, 必得是而後充大, 無是則衰微, 變證百出, 豈止汗乎?

61) 鄭壽全 著, 于永敏 劉小平 校注. 醫法圓通.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4. “更有一等陰盛隔陽于外之證, 夜間亦汗出, 此爲陽欲下交而不得下交, 陽浮于外, 故汗出.”

62) 鄭壽全 著. 醫法圓通.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4. “凡自汗, 盜汗皆是陽虛之徵, 各書具稱盜汗爲陰虛者, 是言其在夜分也, 夜分乃陽氣潛藏之時, 然而夜分實陰盛之候, 陰盛可以逼陽于外, 陽浮外亡, 血液隨之, 故汗出, 曰盜汗. 醫者不知其爲陽虛, 不能鎮紉陰氣, 陰氣外越, 血液亦出, 陰盛隔陽于外, 陽不得潛, 亦汗出. 此旨甚微, 學者務須在互根處理會.”

盜汗을 陰盛格陽의 표현으로 보아 陽虛로 보는 주장이다. 陽이 虛하여 陰氣를 눌러서 들어가게 하지 못하여 血맥이 또한 밖으로 나가거나, 陰이 성하여 陽을 밀어내어 陽이 잡기지 못하여 또한 땀이 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한 陰을 누르는 陰性의 약을 써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補陰하는 처방과 큰 차이는 없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自汗과 盜汗의 원인을 陽虛로 통합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눌러서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밖으로 나온 陰氣와 밀려나온 陽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鄭壽全은 밤에 陰血이 부족하여 眞氣, 元氣가 갈무리되지 못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血맥이 따라 나가 盜汗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서는 다른 기전으로 陰이 성한 것을 말하였다. 밤이라는 시간에 주목하여 陰이 성해진다고 한 것인데 이론상 가능하지만 陰의 실체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모호한 면이 있다.

다음은 『臨症驗舌法』의 설명이다.

그러나 허실은 각각 음양이 있고 음양은 번갈아 허실이 되니 허실에 음양을 나눔에 증상이 혼동되서는 안 된다. 나눔에 그 법을 얻지 못하면 음성을 양성으로 여기거나 양허를 음허로 여겨서 잘못이 없을 수 없다. 또 증상은 양허에 근본하지만 경을 가르치면서 음허라고 말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이해하게 하여 해를 끼치는 것이 알지 않다. 예를 들어 음허하여 도한이 나온다고 말하면 음은 수태음을 말하고 허는 폐기허를 말한다. 또 음허하여 열이 난다고 말하면 음은 족태음을 말하고 허는 비기허를 말한다. 한가지로 음허라고 말하였지만 그 안에 수족태음의 나뉘어 있으니 이름하여 음허라고 말하였지만 실로 비폐기허의 증상이다. 역대의 의사들이 지금까지 그 뜻을 밝히지 못하여 비폐기허를 신수부족으로 잘못 인식하여 자음강화지제를 써서 아침저녁으로 음을 중복시키고 아래로 펌박하여 토가 곤해지고 금이 패하여 묽은 변을 보고 목이 쉬어서 사지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이르는 것은 다만 이 두 개의 음 자를

뜻에 구애되어 글에 이끌려 잘못으로써 잘못을 전함에 있다.⁶³⁾

陰虛盜汗의 陰은 手太陰肺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肺氣虛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陰虛로 盜汗이 나오는 원인인 肺氣虛와, 陰虛로 發熱이 있는 脾氣虛를 腎水不足으로 오인하여 滋陰降火之劑를 쓰는 것을 경계하였다. 구체적인 기전은 밝히지 않고 太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 의견으로 본다면 補氣藥을 사용하여 盜汗을 치료할 수 있다.

盜汗의 원인으로 肺를 드는 것은 특징적인 주장인데, 肺主氣와 肺主皮毛의 이론으로 衛氣의 문제로 땀이 나고 皮毛에서 땀이 난다는 것에 착안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衛氣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앞서 『馮氏錦囊秘錄』의 元氣 개념과 여기서의 肺氣를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盜汗을 陽虛와 氣虛 등으로 보는 주장에는 元氣의 쇠약으로 인해 衛氣가 약해져서 땀이 나가는 것을 自汗과 盜汗의 근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自汗과 盜汗이 낮과 밤이라는 시간적인 차이만 갖게 되고, 盜汗이 낮에는 땀이 그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밤에 성한 陰을 눌러야 땀이 나간다는 것은 陰의 실체가 불분명해지고, 氣虛로 보는 것은 역시 氣가 약한 것을 自汗과 盜汗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인데, 汗出이라는 같은 양태에서 自汗과 盜汗을 구분하는 의미가 적어진다.

63) 楊雲峰. 臨症驗舌法. 中醫世家. 2004. [cited 2020 30 July]: Available from: <http://www.zysj.com.cn/linzhengyan/shefa5385/234-2-3.html> “然虛實各有陰陽，陰陽法爲虛實，於虛實分陰陽，症者又不可混也。而分之不得其法，則有以陰盛爲陽盛，陽虛爲陰虛，而不能無誤者。且有症本陽虛，而經訓曰陰虛，令人錯解，貽害不淺者。如云“陰虛出盜汗”，陰言手太陰也，虛言肺氣虛也。又云“陰虛發夜熱”，陰言足太陰也，虛言脾氣虛也。同曰陰虛，而其中有手足太陰之分。名曰陰虛，而其實是脾肺氣虛之症。無如歷代醫師，從未注明其義，誤以脾肺氣虛認爲腎水不足，而用滋陰降火之劑，朝夕重陰下逼，逼至土困金敗，便溲聲嘶，置之死地而不悟者，只此兩個陰字，拘義牽文，以訛傳訛。”

Ⅲ. 고찰

1. 自汗과 盜汗 病因의 인식 변화

自汗과 盜汗은 汗出異常의 범주에서 함께 다루지고 있는 증상이다. 『黃帝內經素問』에서 盜汗을 의미하는 寢汗의 증상이 나오고, 『傷寒論』, 『金匱要略』에서는 여러 조문에서 自汗, 盜汗의 증상이 제시되었다.

『諸病源候論』부터 自汗과 盜汗의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諸病源候論』에서는 自汗, 盜汗의 원인을 陽虛라고 하였는데, 『金匱要略』에서 虛勞의 범주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인식하였으며 이 陽虛는 心氣가 虛하여 汗이 나온다고 하였다. 『傷寒明理論』에서 傷寒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雜病盜汗은 陽虛가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衛氣의 문제로 파악된다.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인해 陰陽이 치우쳐서 汗이 난다고 하였는데, 치우친 원인에 따라 汗이 나올 때 厥 혹은 熱을 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丹溪心法』 이전에는 自汗, 盜汗의 원인을 대체로 陽虛로 보았다.

傷寒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丹溪心法』 이후에는 自汗의 원인을 陽虛, 盜汗의 원인을 陰虛로 보아 盜汗을 陰虛에 속한다고 보기 시작하였다. 『丹溪心法』 이전에 주로 盜汗의 원인을 陽虛로 보았던 것은 汗이 나오는 현상에 주목하여 衛氣의 문제와 心主汗의 이론으로 본 것이라면, 『丹溪心法』 이후에 주로 陰虛라고 보게 된 것은 盜汗의 病理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원인을 찾으려 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인체의 表部에서 發汗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衛氣虛 또는 心이 주관하는 液이 흘러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盜汗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가면서 衛氣나 心氣와 관련된 陽虛보다는 陰虛의 비중

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丹溪心法』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朱丹溪는 滋陰學說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陽虛를 원인으로 보았던 盜汗을 陰虛로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朱丹溪는 盜汗發熱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四物湯에 黃柏을 가해서 사용하였는데, 朱丹溪는 補陰을 통하여 降火하는 기본 처방으로 四物湯을 사용하였으므로⁶⁴⁾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다른 이유로 『丹溪心法』에서 李東垣의 처방인 當歸六黃湯을 인용한 것으로 볼 때, 李東垣이 살던 시기에 이미 盜汗을 陰虛로 보는 관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李東垣은 當歸六黃湯을 ‘盜汗의 聖藥’이라고만 칭하였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처방의 구성을 보면 黃芪, 生地黃, 熟地黃, 當歸, 黃芩, 黃連, 黃柏으로 되어 있어서⁶⁵⁾ 黃芪를 제외하고 다른 약재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補陰清火를 목적으로 하는 처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丹溪心法』에서 陰虛, 血虛로 규정되어 정리된 것이다. 朱丹溪는 當歸六黃湯의 처방 구성을 보고, 盜汗에 대한 생각이 자신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李東垣의 처방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丹溪心法』 이전에 自汗과 盜汗을 陽虛로 본 이유는 陽氣 즉 衛氣가 주리를 닫는 작용이 失調된 것에 주목하여 설명한 것인데, 金元四大家 이후에는 火熱病機가 발전함으로 인해 陰虛火旺으로 인해 盜汗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 점차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火熱로 인해 陰液을 써서 汗이 나는 것은 『素問·陰陽別論』의 ‘陽加於陰謂之汗’⁶⁶⁾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丹溪心法』 이후 각 의가들이 自汗의 원인인 陽

표 1. 『丹溪心法』전후 盜汗의 인식 변화

	自汗과 盜汗의 포함관계	원인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	비고
『丹溪心法』이전	포함	陽虛	衛氣虛, 心虛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
『丹溪心法』이후	분리	陰虛	腎水不足, 陰氣의 작용 失調 등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

虛를 설명하는 기전은 대체로 일치하였지만, 盜汗의 원인을 陰虛로 보는 것은 같더라도 기전 설명을 살펴본 결과 陰虛의 陰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것이 다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2. 傷寒, 雜病에서 自汗과 盜汗의 기전

의가들 중 일부는 『傷寒論』에 나오는 自汗, 盜汗의 기전을 雜病의 自汗, 盜汗과 구별하여 傷寒自汗, 傷寒盜汗, 雜病自汗, 雜病盜汗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雜病自汗, 雜病盜汗은 일반적으로 自汗, 盜汗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원인이 外感이 아닌 것인데, 예를 들어 『素問·藏氣法時論』의 ‘寢汗’은 腎病에 포함되어 있고, 『素問·藏氣法時論』은 외부의 규칙적인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인체의 五臟이 영향을 받아 병드는 것을 서술한 편이므로 外感으로 인한 것이 아닌 腎病의 寢汗 또한 雜病盜汗의 범주로 추정된다. 盜汗에 대해서 王肯堂은 『黃帝內經』은 心腎이라는 근원을 말하였고, 『傷寒論』은 근원이 흘러가서 邪氣가 있는 장소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⁶⁷⁾.

편의상 傷寒과 雜病으로 나누어 각각 自汗과 盜汗이 일어나는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傷寒論』의 조문에 나오는 盜汗은 邪氣가 太陽의 表에서 陽明의 裏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있을 때 일어난다. 의가들은 대체로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邪氣가 表에 있어서 太陽病에서 營衛不和로 自汗이 일어나는 것과, 裏에 있어서 陽明

病에서 裏熱로 陰液을 밖으로 내보내 自汗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는 경우 잠이 들지 않았을 때는 表 부위의 衛氣를 간섭하는 것이 적고 邪氣가 완전히 化熱하지 않았으므로 自汗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의가들은 잠이 들면 衛氣가 陽分에서 陰分 즉 表 부위에서 裏 부위로 들어오는 것으로 傷寒盜汗의 기전을 설명하였는데, 『傷寒明理論』에서는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어서 밖으로 表와 연결되어 衛氣에 손상을 준 상태에서 衛氣가 밤에 안으로 들어가므로 밤에 表의 衛氣가 더욱 虛해진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醫編』에서는 밤에 陰分으로 衛氣와 함께 들어간 邪氣가 陰을 흔들어서 땀을 나오게 한 것으로 보았는데, 衛氣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邪氣와 함께 들어간다고 보았다. 또 다른 기전을 제시해본다면 낮에는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으므로 땀이 잘 나지 않다가 衛氣가 밤에 안으로 들어갈 때 半表半裏에 있는 邪氣와 正邪抗爭이 벌어져서 이 때 熱이 나서 땀이 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전은 『素問·瘧論』에서 邪氣가 表, 裏가 아닌 곳에 잠복해 있다가 衛氣의 낮과 밤의 순행에 따라 邪氣와 衛氣가 다투면서 학질이 일정한 시간에 발작하는 것⁶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雜病自汗은 『諸病源候論』에서 心氣가 不足하여 表의 陽氣가 虛하여 땀이 난다고 하여 虛勞의 범주로 놓았고,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外感を 제외하면 七情內傷과 房室, 虛勞 등의 不內外因으로 인해 陰陽이 치우쳐서 땀이 난다고 하였다. 『丹溪心法』이후에 원인으로 제시된 陽虛에 대해 대부분의 의가들은 衛氣의 固表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주리의 開闔을 조절하지 못해 땀이 난다고 설명하였는데, 즉 表陽虛, 氣虛로 이해할 수 있다. 이 雜病自汗이 일어나는 기전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설명되었다.

雜病盜汗은 『諸病源候論』에서는 虛勞의 범주에서

64) 劉時覺 林乾良 楊觀虎 編著. 丹溪學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0.

65) 張年順 等 主編. 李東垣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9. “當歸六黃湯 治盜汗之聖藥也. 當歸 生地 黃 熟地黃 黃柏 黃芩 黃連(以上 各等分) 黃芪(加一倍) 上爲粗末, 每服五錢, 水二盞, 煎至一盞, 食前服, 小兒減半服之.”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2.

67)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93. “今觀仲景二論, 似若不同, 究其微旨, 則一而已矣. 何則? 『內經』論其源, 則心腎者乃陰陽之主, 所以論汗必自心之陽, 論寢必自腎之陰. 仲景之云, 從其邪之所在之陰陽, 便成盜汗, 是指陰陽之流者耳. 抑究其源流, 悉是衛氣之爲用.”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0. “此皆得之夏傷於暑, 熱氣盛, 藏於皮膚之內, 腸胃之外, 此榮氣之所舍也. 此令人汗空疏, 腠理開, 因得秋氣, 汗出遇風, 及得之以浴, 水氣舍於皮膚之內, 與衛氣并居. 衛氣者晝日行於陽, 夜行於陰, 此氣得陽而外出, 得陰而內薄, 內外相薄, 是以日作.”

논하였고, 自汗과 같이 心氣가 부족하여 땀이 난다고 보았다. 『傷寒明理論』은 단지 陽虛라고 하였는데, 衛氣의 문제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하지 않았다.

『丹溪心法』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원인을 陰虛로 설명하고 있다. 잠들 때 衛氣가 陰分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리적인 것으로서, 平人是 盜汗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衛氣의 전체가 陰分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여전히 “營在脈中, 衛在脈外.”하면서 表 부위에 있다. 陰이 虛한 상태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虛함을 틈타서 衛氣가 과도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고, 衛氣가 과도하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들어온 衛氣가 상대적으로 陰보다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熱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과도하게 들어온 衛氣로 인해 상대적으로 表 부위의 衛氣가 정상적인 때보다 적게 되는데, 이에 주리의 固表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땀이 나게 된다. 따라서 陰虛로 일어나는 기전에서 결과적으로 自汗처럼 表陽虛의 기전 또한 나타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熱이 陰液을 밖으로 내보내서 땀이 난다. 하지만 잠에서 깬 때 衛氣가 表 부위에서 회복됨으로 인하여 땀이 그치기 때문에 熱이 나더라도 實熱보다는 심하지 않고 일시적이다. 이것이 陰虛로 인해 雜病盜汗이 일어나는 기전이다.

雜病盜汗의 기전을 五臟 중 心과 腎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心主汗의 개념을 바탕으로 汗出의 문제를 心으로 보기도 하고, 잠잘 때 衛氣가 陰分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陰分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腎의 主五液의 개념과 藏하는 작용 실조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따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둘을 연결하여 腎陰이 부족하여 水升이 되지 않아 心의 陰氣가 不足하게 되어 心氣가 수렴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서 땀이 난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衛氣가 下焦에서 나와서 上焦에서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주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잠에서 깬 때 땀이 그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추가로 雜病盜汗의 위 두 가지 설명은 衛氣의 운행과 五臟을 활용하여 설명한 것인데, 밤이라는 시

간적인 특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낮에 땀이 나지 않다가 밤에 땀이 나는 것은 밤에 악화되어 두드러지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 밤에 陰이 用事하는 때에 陰이 길러지지 않고 소모되면서 밤에 길러져야 할 衛氣가 더욱 虛해지는 것이다. 잠에서 깬 때 외부의 陽氣를 받으면서 비로소 땀이 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雜病自汗과 雜病盜汗은 陽虛, 陰虛의 虛證의 범주에서 설명하지만 內因으로 인해 생긴 實熱의 경우에도 熱이 땀을 내보내는 기전으로 인해 自汗, 盜汗 모두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교과서 등에서 濕을 말하고 있고, 王清任은 血瘀의 원인을 말하였는데⁶⁹⁾, 이것은 濕, 血瘀 등으로 인해 衛氣의 운행이 막히면서 땀이 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각각 傷寒과 雜病의 自汗과 盜汗의 기전을 살펴보았다. 편의상 넷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지만, 임상에서는 각각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傷寒盜汗은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로써 의미가 있으므로 小柴胡湯을 위주로 치료하는 증상군에 속하는 것일 뿐 실제 盜汗 자체는 傷寒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한 병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역대 의서의 논설에서 傷寒盜汗의 기전 설명이 적은 것으로 볼 때 傷寒에서의 盜汗의 증상과 기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雜病盜汗은 盜汗의 증상 자체가 치료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전에 대한 설명의 시도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3. 自汗과 盜汗의 관계

역대로 의가들이 自汗과 盜汗에 대하여 정의 내린 것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自汗의 정의에 盜汗이 포함되거나 自汗과 盜汗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傷寒論』에서는 비록 自汗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밝히지 않았지만, 營衛

69) 王清任 著. 醫林改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5. “醒後出汗, 名曰自汗. 因出汗醒, 名曰盜汗. 盜散人之氣血. 此是千古不易之定論. 竟有用補氣、固表、滋陰、降火、服之下效, 而反加重者, 不知血瘀亦令人自汗、盜汗. 用血府逐瘀湯, 一兩付而汗止.”

不和와 陽明裏熱 등으로 일어나는 汗自出은 잠들 때도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自汗과 盜汗에 대하여 정의한 『傷寒明理論』과 『三因極一病證方論』의 내용을 보면 自汗의 범위에 盜汗이 포함되고, 『丹溪心法』의 내용을 보면 역시 自汗의 범위에 盜汗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후의 여러 의서에서 증상을 열거할 때 自汗과 盜汗을 병칭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丹溪心法』 이후에 크게 自汗의 원인을 陽虛, 盜汗의 원인을 陰虛로 상반되게 구분하고, 두 증상을 따로 떼어서 인식하게 되면서 自汗을 잠에서 깨었을 때, 盜汗을 잠들었을 때 땀이 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본 것이다.

현재 국내의 교과서에서 自汗은 『三因極一病證方論』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自汗이 盜汗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自汗과 盜汗을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 自汗이 깨어있을 때에만 나는 땀이라면 盜汗에서 잠들 때 땀이 나다가 잠에서 깬 때 衛氣가 회복되어 땀이 그치는 것처럼, 自汗도 깨어있을 때 나는 땀이 잠이 들면 그치는 기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衛氣가 固表하지 못하여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自汗이 陰分으로 들어가는 밤 시간에 自汗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경감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自汗을 낮에만 나는 땀으로 규정한 서적을 찾아보았을 때 명확하게 기전을 설명한 부분은 없다. 논자가 추론을 해본다면 낮에 煩熱이 뜨던 것이 밤에 가라앉으면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盜汗이 잠잘 때만 땀이 나는 것이고, 自汗은 어느 때고 땀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盜汗보다 自汗이 더 심한 병이라고 단순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대에 『羅氏會約醫鏡』에서는 眞元の 소모 여부로 두 증상을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는데⁷⁰⁾, 이것으로 본다면 自汗을 盜汗보다 더 위중한 경우라

고 볼 수도 있다.

관련 논설을 살펴보면 초기의 문헌인 『諸病源候論』에서는 盜汗을 自汗보다 虛勞의 범주에서 보았고, 『三因極一病證方論』에는 盜汗을 自汗보다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 하루 중의 陽氣의 盛衰에 따라 “夫百病者, 多而且慧晝安, 夕加夜甚.”⁷¹⁾이라고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傷寒에서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는 盜汗은 太陽病과 陽明病의 사이 혹은 陽明病에서 三陰病으로 들어가는 전 단계에서 일어난다. 일부 의가는 『傷寒論』조문에는 없지만 三陰病에서도 盜汗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⁷²⁾. 邪熱이 血分에 잠복하였다고 하였는데, 三陰病은 虛證의 범주여서 雜病盜汗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自汗, 盜汗의 기전에 대해서 역대 의서의 논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丹溪心法』 이전에 주로 盜汗의 원인을 陽虛로 보았던 것은 땀이 나오는 현상에 주목하여 衛氣의 문제와 心主汗의 이론으로 본 것이라면, 『丹溪心法』 이후에 盜汗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가면서 陰虛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2. 『丹溪心法』을 기준으로 自汗, 盜汗의 원인을 대체로 陽虛로 보던 것에서 盜汗의 원인을 陰

70) 羅國綱. 羅氏會約醫鏡.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20 30 July]: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166484> “凡盜汗, 屬陰虛有火, 而眞元猶未大虧, 所以歷久無害. 若自汗, 則眞元耗散, 肺失統氣之權, 不治, 勢必陽亡陰竭而危. 治自汗, 以溫熱補益, 治盜汗, 以清涼滋補.”

7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6.

72) 秦之楨. 傷寒大白.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73-174. “盜汗者, 睡中乃出, 醒則止矣. 雜症門, 責之血虛有火, 故用當歸六黃湯等補血涼血. 外感盜汗, 是邪熱在半表半裏之間, 故用小柴胡湯. 然不獨少陽一經, 有盜汗, 三陽三陰, 皆有盜汗也. 三陽盜汗, 皆邪熱未盡; 三陰盜汗, 皆熱伏血分. 故盜汗之症, 有熱無寒者也. …(중략)…仲景論中, 但有三陽盜汗, 無三陰盜汗, 以盜汗皆表症耳. 今見熱邪傳入三陰, 亦有盜汗者.”

虛로 보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朱丹溪의 滋陰學說중시, 當歸六黃湯의 처방구성, 金元四大家 이후 火熱病機의 발전에서 추론할 수 있다.

3. 傷寒盜汗은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는 것인데, 밖으로 表와 연결되어 衛氣에 손상을 준 상태에서 衛氣가 밤에 안으로 들어가므로 밤에 表의 衛氣가 더욱 虛해진다고 볼 수 있고, 밤에 陰分으로 衛氣와 함께 들어간 邪氣가 陰을 흔들어서 汗을 나오게 한다고 볼 수도 있고, 衛氣가 밤에 안으로 들어갈 때 半表半裏에 있는 邪氣와 正邪抗爭이 벌어져서 이 때 熱이 나서 汗이 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4. 雜病盜汗은 陰이 虛함을 틈타서 밤에 衛氣가 과도하게 들어와서 表가 虛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들어온 衛氣가 상대적으로 虛해진 陰보다 많기 때문에 熱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밖에 밤이라는 시간적인 특성상 陰이 用事하는 때에 陰이 길러지지 않고 소모되면서 밤에 길러져야 할 衛氣가 더욱 虛해져서 汗이 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의서의 논설을 중심으로 自汗과 盜汗의 기전을 살펴보았는데, 원인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전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연구를 통해 각 의가들의 自汗과 盜汗에 대한 여러 관점을 파악하여 이해를 넓히고 혼동을 줄어줄게 하며,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관련 증상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Reference

1. 葛洪 撰, 葛洪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3. 金景範 編, 金匱要略辨釋. 용인, 한의문화사. 2003.

4. 董漢良 主編, 越醫滙講(附:吳醫滙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5. 盛維忠 主編, 薛立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 吳謙 等編,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7. 吳昆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8. 王清任 著, 醫林改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9. 劉時覺 林乾良 楊觀虎 編著, 丹溪學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0.
10. 張登本 孫理軍 主編, 王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1. 王象禮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12. 陸拯 主編, 近代中醫珍本集 鍼灸按摩分冊.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13.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4.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15.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6.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17. 張年順 等 主編, 李東垣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8. 張隱庵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19. 田思勝 主編, 馮兆張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0.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 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21. 鄭壽全 著, 于永敏 校注, 醫理真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22. 鄭壽全 著, 于永敏 劉小平 校注, 醫法圓通.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3. 朱文鋒 主編, 中醫診斷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 出版社. 2010.
24. 周仲英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1.
25. 陳士鐸 著.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26.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27. 秦之楨. 傷寒大白.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8. 何夢瑤 撰. 醫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9. 한의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編著. 한의병리학. 용인. 한의문화사. 2019.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2. 黃庭鏡 著. 目經大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33. 黃元御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素問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34. 류정아. 汗에 대한 研究 - 分類와 臨床活을 中心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35. 朴淳達. 自汗·盜汗의 病因에 關한 文獻的 考察. 동서의학. 1988. 13(2). pp.5-14.
36. 溫佳雨. 自汗·盜汗의 古代文獻研究與學術源流探討.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37. 王翠英. 自汗未必皆陽虛, 盜汗未必陰不足. 長春中醫學院學報. 1996. 3. p.6.
38. 李光揆 의 2人. 汗出의 病因病機에 對한 文獻的 小考.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 10(2). pp.62-75.
39. 羅國綱. 羅氏會約醫鏡.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20 30 July]: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166484>
40. 羅美. 古今名醫滙粹. 中醫世家. 2004. [cited 2020 30 July]: Available from: <http://www.zysj.com.cn/lilunshuji/gujinmingyihuicui/631-10-10.html>
41. 楊雲峰. 臨症驗舌法. 中醫世家. 2004. [cited 2020 30 July]: Available from: <http://www.zysj.com.cn/lilunshuji/linzhengyanshefa5385/234-2-3.html>